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EC 15 1981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95 1981년12월1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December 14,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200만도난사건범인체포

FBI, 미국인3명 주모자로입건

수송맡은 운송사직원, 친구등과 공모범행

인간사회에 오리무중의 완전범죄란 있을 수 없다. 007첩보영화를 방불케하던 뉴욕 리퍼블릭은행이 서울 외환은행으로 공로(KAL편) 보낸 현금 200만달러가 도중 백지뭉음으로 둔갑한 기상천외의 괴사건도 범인체포로 일단락짓게 됐다(본보11월26일자).

(뉴욕지사) 200만달러 운송도중 증발사건의 주범일당이 체포됐다.

FBI 뉴욕사무소는 10일 현금운송을 맡았던 아모드회사(Armored Express)직원이 낀 외환은행 200만달러 도난사건의 범인 3명을 검거, 현찰 29만5천달러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FBI뉴욕사무소 리차드·브레칭 특별수사관은 체포한 범인은 (1)블루클린의Brighton Beachrug회사 주인 빈센트·갬베일(Vincent Gamballe 38세 1481 E.17 St.브룩클린)(2)현금운송을 담당한 아모드·익스프레스 직원 프랭크·모레이(Marrale 45세 2034 78St.Brooklyn)및 (3)그의 아들 알포스·모레이(19세 Owen Trucking Co.주인)의 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인일당은 FBI퀸스·블루클린사무소 수사대에 의해 잡혔는데, 빈센트·갬베일은 상오 10시반 자기 소유의 카펫회사에서, 프랭크·모레이는 낮12시15분 아모드·익스프레스회사 건물밖에서, 알폰스·모레이는 아침 7시15분 자기집에서 각각붙잡혔다.

FBI가 밝힌 이들의 범행경위는—당초 리퍼블릭·내셔널은행(RNB)이 지난 11월9일 연방중앙은행에서 200만달러를 갖고와 10일 아모드·익스프레스에 넘겨주어 현금운송을 담당케했다.

프랭크·모레이등 일당 3명은 이 현금을 10일 KAL측에 넘겨줄 때 진짜 행낭을 차밀에 둔채 종이가 든 가짜행낭을 KAL직원에게 건넸다.

FBI는 처음 이 사건은 현금운송회사인 아모드·익스프레스와 관련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던 중, 범행을 모의한 사람들중 1명으로부터 제보를받고 범인일당을 체포하게됐다고 브레칭 수사관은 밝혔다.

그는또한 이로서 수사가 끝난 것이아니고 계속중이며, 사건당일 현금수속을 맡은 아모드·익스프레스직원중 체포된 모레이 외의 3명에게도 공모협의를두고 있어, 공범이 더 있을수 있다고 비쳤다.

브레칭 수사관은 범인체포 사실은 10일하오 현재까지 아직 한국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범인일당은 맨하탄의 뉴욕 연방지법에 기소될 것이며 아모드.익스프레스 직원인 프랭크·모레이와 그의 아들 알프스는 음모혐의로 미연방형법 371조에 규정된 벌금 $5000에 징역 최고 10년, 빈센트·갬베 일은 벌금 1만달러에 징역 최고 5년까지 선고받을수 있다.

FBI 브레칭 수사관은 이 사건에 한국인이 관련된 바는 없다고 확인하면서 공범 수명의 신원을 포착, 수사를 거듭하고 있으며, 범인들이 빼돌린 돈도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된 3명의 범인중 빈센트·겜베일과 프랭크·모레이는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10일 맨하탄의 연방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범인들중 정보를 제공한 제4인물은 사건수사에 협조한 공으로 기소치 않을 것이라고 수사관이 말했다.

단순마약 소지자 처벌완화

공급 판매책은 더욱 엄중히

(오타와)연방정부는 몇몇 주정부의 반발에도 불구, 마리화나나 해쉬쉬등마약소지 금지법의 완화를서두르고 있다.

연방정부 캐프란 검찰총장은 이번 마약법 개정 에서는 마약소지 혐의에는관용을 베풀고, 마약공급이나 판매에는 더욱 엄격한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은 연방및 주정부 검찰총장의 연석회의에 뒤이은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온타리오 검찰청 로이·맥머트리 총장은 젊은이들에게"단순한 마약소지"로 전과기록을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법은 마약남용에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머트리 총장은 이 "단순소지"란 말에 엄격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법안개정에는 온타리오주외에 사스케치 완주도 법안개정전 충분한 마약에 관한 교육, 캠페인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사하로프 단식중단

가족 출국허가 조건으로

◇ 리자·알렉세예바

(모스크바)소련의 비밀경찰 KGB는 반체재 인사 사하로프가 단식투쟁을 중단하는 대가로 그의 며느리인 리자·알렉세예바의국외출국을 허가한다고 알렉세예바여사가 9일 전했다.

리자·알렉세예바의 남편이자 사하로프 부인의 전 결혼소생인 아들 알렉세이·세미오노프는 현재 미국 보스턴에서 대학원과정을 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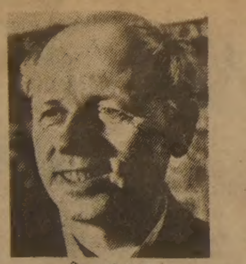
9일 KGB는본부로 리자여사를 소환, 사하로프와 부인 옐레나·본너 여사가 자신의 출국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단식투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자여사가 언제 비자를 받고 출국이 허가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하로프는 2년전 부터 볼가강변의 고르키로 유배, 지난달 22일부터 부인과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건강이 상당히 악화, 병원으로 이송됐다.

KGB는 또 만일 리자여사가 서방 특파원등 "반소감정을 자극시킬 만한"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출국날자가 변경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사하로프는 소련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75년 인권운동에 관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반체재 인사로 알려졌다.



◇ 사하로프

LSD사용늘고 마리화나는 줄어

77년이후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각제 LSD등 각성제 사용율은 67% 늘은 반면 마리화나 사용은 약간 줄었음이 8일 마약중독연구재단이 발표한 통계에서 나타났다.

LSD를 단기복용한 경우 기분전환, 시간관념혼돈, 손발이 떨리는 것등의 효과가 있고,장기복용의 경우 경련,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앵퍼타민, 벤제드린등 각성제 사용의 경우 기분이 상승하고 어지럽고 땀이 나며 식욕이 줄고, 혈압이 올라간다.

중독연구재단은 온타리오주 퍼블릭및 캐톨릭스쿨 7 9, 11, 13학년학생 3천2백7십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들에 음주가 가장 인기있었고 72%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또 저급학 년의 학생들은 고학년보다습관성환각제 사용량이 적고, 79년이후 알코홀과 담배의 사용이 줄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마리화나, 헤로인 코캐인등을 더 사용하여, 매니큐어 제거약 페인트 신너등 솔벤트류사용은 [illegible] 었다고 이 통계는 밝혔다.

이글튼시장 재혼

신부는 10세연하의 브렌다양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38)이 10일밤 보조회계사 브렌다·클룬(28)양과 화촉을 밝혔다.

이날밤 8시10분 추위가 기승을 떠는 가운데 결혼식장인 세인트·마이클즈성당에 모인 500여명의 하객가운데는 폴·갓프리 메트로시의회의장, 잭·아크로이드 메트로 시경국장, 스튜어드·스미스자유당당 수및 데이빗·크롬비연방 보 [illegible]의원등이 포함됐고, 빌·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을 대리해 톰·웰즈 총무처장관이 나왔다.

이글튼시장에게는 재혼이고, 신부 브렌다양 에게는 초혼. 이글튼의 첫 결혼에서 난 12살난 딸 스테파니양이 들러리를 섰다.

신부 브렌다양은 라밧트맥주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전직 모델로 이들 커플은 2년반전 로마에서 만났다.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은 [illegible]

◇결혼식후 식장인 세인트·마이클즈성당을 떠나는 이글튼시장부부. 포트욕근위대의 호위를 받고있다.

韓國 국제開發銀 싱가폴에 첫開店

〈싱가폴-UPI〉싱가폴의 첫 한국계은행인 한국국제개발은행이 5백만달러의 자본금으로 16일 개점한다.

최신규 초대지점장은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지원과 이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은행설립은 지난번 전두환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으로 다져진 아시아 각국간의 경제협력증진의 일환이다.

◁금주의 행사▷ (12월14일~20일)

◇12월15일(화) 제5회 문협「신춘문예」모집마감
연락처 : 533-2364(Mr. 리)

◇12월16일(수) 하오7시30분 코리아타운 번영회 연말파티
곳 : 뉴서울식당(529 Bloor St. W.)
연락처 : 537-6685

◇12월18일(금) 하오7시 한양대 동문 성탄. 송년파티
곳 : 거구장(Bethridge Rd.)
연락처 : 742-1618

◇12월19일(토) 하오7시 숙명여고동창 성탄파티
곳 : 이정신 회장댁(1473 Adamson St. Mississauga)
연락처 : 276-3255

◇12월19일(토) 하오7시30분 볼링협회주최 크리스마스 송년잔치
곳 : Albion 커뮤니티 센터(1485 Albion Rd & Kipling Ave)
연락처 : 759-8228(Mr. 장)

◇12월19일(토) 하오7시 중동동창 연말파티
곳 : Macho Restaurant(4035 Gordon Baker Rd)
연락처 : 743-5329

◇12월19일(토) 하오7시 경기여고동창 송년파티
곳 : 오리엔탈 팔레스2층(529 Bloor St. W.)
연락처 : 698-6907(Mrs. 차)

◇12월19일(토) 하오7시 경동동창파티
곳 : 한인회관(20 MobileDr.)
연락처 : 624-3849(백운산)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0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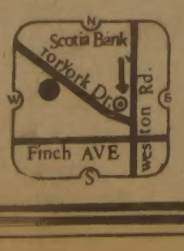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햄버거 샾
주매상 만3천달러. 몰개지 10만달러.
가격 : 38만5천
도넛 샾
•일요일 닫고 하루12시간 영업 운영간단
년수입 : 4만5천. 아스킹 11만 달러
•주매상 : 4천5백. 주매상 : 5천5백
주매상 : 6천5백. 주매상 : 7천달러 되는 도넛츠 스토아 여럿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2백달러. 주매상 : 5천달러(일요일닫음.
주매상 : 5천5백달러. 주매상 : 6천달러.
주매상 7천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가옥
•주매상 4천달러. 코너건물. 2 베드룸
아스킹 12만8천달러
•주매상 6천달러. 코너건물 3 베드룸
아스킹 22만달러
쇼핑 몰
스모크, 기프트 샾. 새로 OPEN 됨아스킹 8만달러
기프트 크래프트. 허비 샾. 년매상 17만달러.
아스킹 8만달러
대지및 가옥
2놓에이커 땅에 가옥이 있으며 교회자리로 적합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illegible]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illegible]-8845(B), 286-1548(R) M3B 1Z3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2ND CLASS MAIL NO. 524[illegible]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H55

밤낮없는 초비상 지하요새

동굴都市「北美 우주防空司令部」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소련은 미국의 어느곳을 공격할 것인가 — 이와같은 가상질문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NORAD)가 제1차 공격목표대상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록키산맥의 샤이안마운틴 속에 자리잡고 있는 NORAD는미국의 핵전쟁 최전선사령부로 적의 핵탄두가 미국으로 날아오는 사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공급, 반격태세를 갖출 수있도록 하는 핵전쟁 조기경보 센터이다.

LA지사 김영식특파원 현지르뽀

NORAD의 기능은 적의 기습에 대한 조기경보에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계 어느지역에서 북미 대륙을 공격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NORAD가 이를 제일 먼저 포착, 백악관과 펜타곤 및 전투부대사령부에 즉각 연락하게 된다.

북미우주방공사령부는핵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딜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지하화되어 있다. 길이 4천6백75피트, 폭 29피트, 높이 23피트로 파진 샤이안마운틴의 거대한 동굴 은 동굴이라는 표현보다는 타운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같다. 빌딩만 15개나되며, 이가운데 11개는3층건물이다 특색이 있다면 유리창이 없다는 점이다.

15개의 건물은 핵공격의 진동을 피하기 위해 동굴의 벽및 밑바닥과 떨어져 있어 이 거대한 우주방공사령부는 공중에 떠있는셈이다. 진동때문에 동굴 내부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Shock Absorber(충격방지장치)를 건물과 동굴벽사이에 두고있다.

NORAD는 전투 부대가 아니다. NORAD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미군기지의 레이다망을 통제하는 중추신경역할을 하고 있다. 미전략공군사령부(SAC)및 미사일기지는 NORAD로 부터 적의 움직임을 통보 받아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통보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경보를울리게 되어있다.

적이 핵미사일을 이미발사했는데, 전화나 암호로 각 전투부대에 연락할만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없다. 93개의 대형컴퓨터가 각지역으로 동시에 연락하게 된다.

NORAD는 5개의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미사일 및 우주방공센터, ▲방공작전센터, ▲전미 민간경보센터, ▲일기예보상황실, ▲통신정보센터의 5개부처에 1천4백명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다.

「핵전쟁의 눈」인 NORAD는 미합참 소속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국방성이공동운영, 사령관은 미공군의 제임스하팅거 대장, 부사령관은 캐나다공군의 케네스도니크로프트 소장으로 되어있다.

캐나다측에서는 이밖에도 온타리오의 노스베이에 NORAD가 지휘할 수 있는 비행편대를 배속, 7천4백명의 캐나다공군이 이 기지에서 움직이고 있어 NORAD의 지휘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경관이 도둑둔갑

LA 경관2명 구속

2명의 LA경찰국 경찰관들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되었다고 7일밤 LA경찰국장 대릴·게이츠가 발표했다.

이들은 헐리웃·디비젼소속 순찰경찰관들인 로널드·베네가스(32세)와 잭·마이어스(41세)로 밝혀졌다.

게이츠 국장은 이사건에 한, 두명의 다른 경찰관들이 더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료경찰에 구속되어 심문을 받고 있는 베네가스와 마이어스는 헐리웃과다른 지역에서 밤에 상점 에 침입, 비데오 테이프 녹음기, 테이프등 전자제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LA경찰국은 정복경찰관의 절도행위를 적발하기위해 약1개월반 동안 전자제품상점을 설치, 함정수사를 했었다.

LA경찰국은 지난7일헐리웃지역에서 비데오와 녹음기등을 훔친 혐의로 2명의 베테랑 경찰관들을 체포한데 이어 3명의 다른경찰관들을 똑같은 혐의로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벤추라카운티에 있는 두명의 경관도둑집들을 수색했던 LA경찰당국은훔친 물건으로 믿어지는 8만달러어치의 상품들을 발견했다.

지난7일 경찰에 구속되었던 두명의 경찰관들은이날밤 5천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왔다.

LA경찰국 대릴·게이츠는 이들이 훔친 물건들을 헐리웃밖에 있는 다른 상점에 팔았다고 밝혔다.

게이츠국장은 정복순찰경관이 절도행위를 한사건은 26년전 웨스트 LA에서 발생한 뒤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피임약은 여성을 천하게

피임약은 여성의 지위를 오히려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페미니스트 저메인·그리어 여사가 최근 주장했다.

런던에 소재한 웨스턴·온타리오대학에서 강연을 가진 그리어는 피임약은여성이 언제나 섹스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섹스를 제공해야만 사랑을 받을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적지 않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들은 임신방지 목적으로 피임약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들 자신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요즈음 피임약이 성행하게 된데 대해 그녀 세대의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50년대와 60년대초 피임약이 처음 시장진출을 했을 때, 아무 비판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어는 지금 북미문화는 제3세계 여성들까지도 그들의 전철을 밟아,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은 섹스를 "일과후의 준비운동이나대화를 대신하는 행위"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리어는 남성에 의해, 혹은 남성을 통해 살아지는 삶을 영위하는 소위 진보된 서구여성들이 제3세계 여성들보다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해 관리를 잘못한다고 지적, "우리자신이 여성은 완전무결하게 성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

2백만불어치
대중공 식량원조

(북경)캐나다는 중공에 비상식량으로 2백만달러어치의 밀을 무상원조한다.

이같은 식량원조는 중공의 유엔대표가 최근 대재난으로 황폐화된 중공의 2개 성을 지원하도록 세계식량계획에 특별호소한 때문이다.

중공 중부지방의 후베이성은 26년래 최악의 홍수로 경작지의 4분의 1이 물에 쓸리고 수십만의 수해민이 집을 잃었으며, 북경외곽 헤베이성은 37년째최악의 가뭄으로 곡식, 산림등의 극심한 피해는 물론 식수난까지 겪고있다.

캐나다의 대중공 식량원조는 작년 8월 맥기건 연방정부가 중공이 식량원조대상국에 끼임을 공식발표한 후 처음 실시되는 일이다.

한국일보
533-2361

캐나다 헌법안 개요 ①

〔편집자 주 : 본보는 이제 형식적인 캐나다 종주국인 영국의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 신헌법안을 간추려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전 문

이 캐나다 헌법수정안은 캐나다측 요청과 신념에 의해 영국하원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캐나다는 독립국 으로서 캐네디안 스스로 고유의헌법을 고칠수있는 권리를갖고있다.

캐나다는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헌법을 수정한다.

(A)신헌법안은 캐나다의 상.하원의 요청에의해 작성됐다.

캐나다는이헌법안이영국하원의 인준을 받은다음 존경하는 여왕폐하 내락을기다린다.

본 안은 다음과같은 경로로 효력을 발생한다.

1. 본문에 나타낸바와 같이 모든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헌법안 통과후의 영국하원 결정은 이 헌법안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3. 불어로 번역된 헌법안은 영어로된 헌법안같은효력을 발생한다.

4. 이 헌법안을「캐나다 헌법」이라한다.

◇본 문

제1장 인권과 자유권 주장

〈자유와 인권의 보장〉

1. 캐나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법률에 제한을받는 특별조항을 제외한 모든분야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인정한다.

〈자유권의 개념〉

2. 모든사람은 아래와같은 자유권을 누린다.

a)양심과 종교의자유

b)언론, 출판, 표현의자유

c)평화적 조직의 자유

〈민주적 권리〉

3. 모든 캐나다 시민은연방의회 의원및 자치단체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및피선거권을 갖는다.

4. ①연방의회를 비롯 모든 자치단체 의회의원들의 임기는 5년 미만으로한다.

②전쟁등 천재지변이일어났을때 각종 의회는 3분의1이상의 의원들 반대가 없는경우 임기를 5년 으로 할 수 있다.

5. 연방의회와 주의회는적어도 매12개월마다 1 번의 기회를 갖는다.

〈거주이전의자유〉

6. ①모든 캐나다시민은자유로이 캐나다밖을 여행, 거주이전을 할 수 있다.

②캐나다시민과 영주권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거주이전의 자유가있다.

a)캐나다내에 자유로히 이주할수 있다.

b)어느주에서도 동등한 생존권이 주어진다.

〈법적인 권리〉

7. 만인은 생존및 자유, 자기보호의 권리가 사회정의의 개념에 입각, 동등하게 주어진다.

8. 누구든지 이유없는 수색이나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9. 만인은 재판없이 구금또는 투옥되지 않는다.

10. 만인은 체포또는 구금됐을때 다음과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a)체포또는 구금된 이유가 본인에게 즉각 주어져야한다.

b)누구든지 즉각 법적자문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c)구금됐을때 영장에 의해 기한이 명시돼야하며, 구금의 법적효력이 없을때는즉각 풀어져야 한다.

11. 법에의해 입건된 사람은 다음과같은 권리를 가진다.

a)어떤행위가 어떤법에 저촉됐는지를 즉각알 권리.

b) 정해진 시간내에 기소될권리.

c)강제로 증언대에 서지않을 권리.

d)공개된 공정한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을때 까지는 무죄일 권리.

e)아무런 이유없이 보석이 거부되지 않을권리.

f)군사재판을 제외하고 5년이상 형을 규정한 법을 위반한자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가 있다.

g)캐나다법, 국제법, 또는판례등에 의하지 않고는 유죄로 인정될수 없다.

h)재판결과 형이 확정된사건을 가지고 다시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

i)범행당시의 법적규정 형량과 선고시의 형량이 다를경우피의자에유리하도록 약한형량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12. 모든피의자는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3. 증언자는 그 증언으 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위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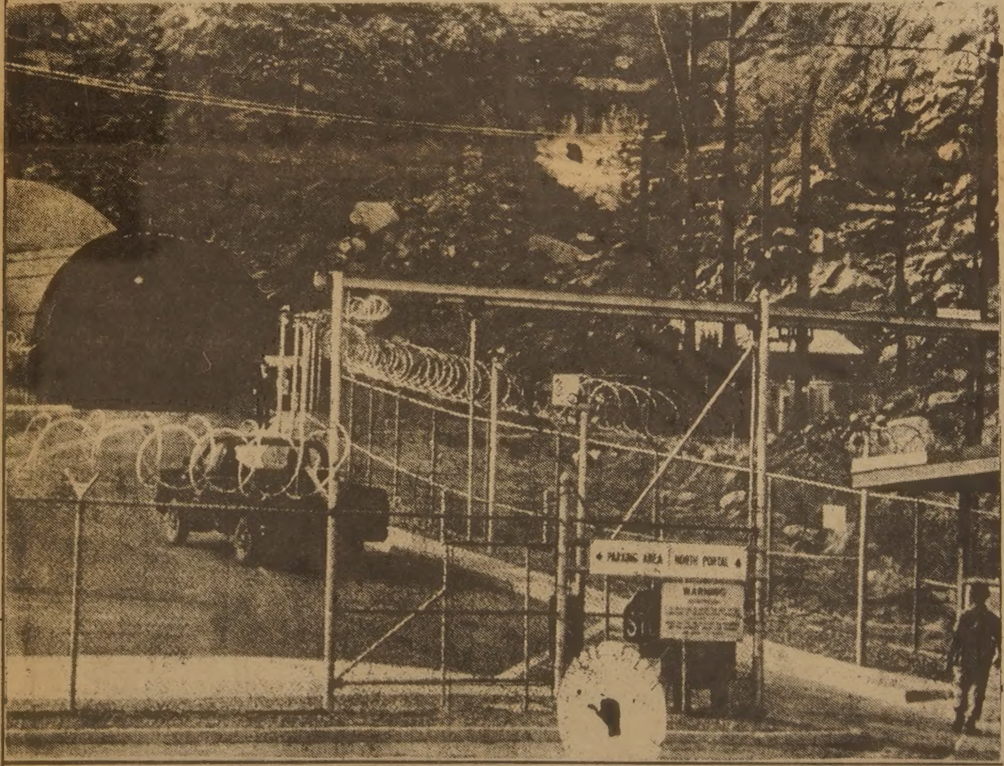
14. 증인이나 피의자가 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이해 못하거나 귀머거리일경우 통역인의 도움을받을권리가 있다.

(계 속)

아내의 장바구니 밑에 살짝 넣어놓는
주 간 여 성
행복한 결혼속의 작은 기쁨입니다

록키산맥의「들창없는 都市」NORAD

▲철통같은 경비속에 둘러싸인 북미우주방공사령부 동굴입구—자동차가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으며 15개의 건물이 자리잡고있어 「들창없는 타운」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적의 핵공격에도 내부건물이 진동을 받지않도록 특수디자인 되어있다. 1천4백명의 육해공군요원및 민간인 기술자들이 24시간근무. 터널길이 4천6백75피트. 도로폭 29피트. 사령관은 미 공군장성, 부사령관은 캐나다 공군장성이다. 북미전역으로 뻗어있는 경보장치는 39개 컴퓨터로 자동연결되어있다.〈김영석기자찍음〉



송춘희특별출연
뉴—서울
529 BLOOR ST W.TOR.
(오리엔탈파레스2층)
전화 : 533—2500

아쉬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그간 교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저 유명한 민요가수 송춘희양을 초청하고 12월28일부터 신년 1월3일까지(7일간)뉴—서울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이 기간중 연말잔치, 신년잔치등 많이 이용하시고 즐거운시간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권순근악단
아리랑무용단
매일출연

영업시간 :
7시부터새벽1시까지
일요일영업 7시~10시

— 송년잔치예약 —

12월31일 송년잔치(NEW YEAR'S EVE CELEBRATiON)에 한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읍니다.

가 격 : 1인당 $25.—
파티시간 : 7시~1시까지
예약전화 : 낮(533—3545)
밤(533—1500)

식사제공(버훼—)
송춘희쇼—
파티에 필요한 모자, 은관, 피리등 제공함.

위니펙 재봉사 위문단 결성

한국의 젊은 산업전사의 맥박을 이역만리 캐나다땅에까지 뻗쳐, 근면하고 의욕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위니펙 여재봉사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따스한 동포애의 유대감을 한 아름씩 안겨주기 위해 본사는 연예인단을 동원, 아래와 같이 「위니펙 한인재봉사 위문단」을 결성하게 되었읍니다.

이 출장 위문공연에 동참·외로운 아가씨들의 위문의 밤에 동행하실 우애의 소유자는 정원되기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문품도 접수하오니 뜻이 있는 분은 본사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때 : 1981년 12월27일(일) — (1박2일 ; 28일 귀환)
곳 : 위 니 펙
연 예 인 : 권순근 악단(4명), 가수 : 미스 박
신 청 : 선착순 접수중(15명 제한)
비행기값 : 각자부담(왕복 $200 미만)

주 최 : 한 국 일 보 — 토 론 토 사

〈소 론〉 ④

실업인 협동조합 설립

김 학 량 (한인신용조합 부이사장)

일반에서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조직하면 공판장(Cash & Carry)을 가장 먼저 Open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 자신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절실히 인지하면서도 굳이 이를 성급하게 권하지 못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1)우리의 협동조합은 생산자나 소비자도 아닌 중간상인조합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염가공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 Cash & Carry 에 있어 Wholesale Margine 구조는 약 7%~12% 선으로 보는데 협동조합 에서 Cash & Carry를 운영한다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기존 Cash & Carry 가격보다 염가로 공급해야만명분이 설 것이다. 소정의 수수료 약5%만을 가산한다면 분명히 염가로 공급할 수는 있으되 이 수수료 만을 가지고 Warehouse의경비와 Wage 운송비등이 Cover될 것인지 의문이며.

(2)Warehouse를 지역적으로 중앙에 둔다면 이용조합원이 중앙에 한정되어. 조합원 전체에 혜택을 준다고 보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한인업자의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인데 동, 중, 서로 설치한다는 문제도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초기에 있어서는 부족한 자산으로 꼭 공판장을 먼저 운영하기보다는 조합이 안정자산을 구축할 때까지는 전기한 바 있는 공동구매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부터착실하게 정복해 나가는 길이 조합발전의 첩경이라고 본다.

D. 직배(直配)사업

"직배사업"이라 함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매일처럼 배달을 요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직배사업으로 는 밀크와 빵을 들 수 있다.

밀크와 빵에 관해서는 지면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과거 밀크회사와 Rebate 문제나 배달문제등으로 인하여 수 없이 사고가 생겼으며. 가격면에서도 Chain Store와 경쟁으로 원가이하로판매하고 있는 상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감안할 때 밀크야 말로 하루 속히 자체 Warehouse및 수송시설을 가지고 대메이커와의구매계약을 통하여 직배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밀크만은 현재의 여건하에 가능하다고 보는 점은,

(1)그 물량이 막대하여 수수료수입만도 거액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자체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2)질과 서비스면에 보장만 된다면 전체 한인업체가빠짐없이 조합산하로 뭉치게 되며,

(3)Rosan Dairy회사가 Silverwood milk판매회사 로서 과거 수년간 운송배달을 담당하여 착실한 발전을 거두고 있는 실례(實例)가 있고,

(3)큰 밀크회사가 운송관리면에 어려움이 점증되고있어, 앞서 언급한바 있는 Rosen Dairy 회사에 실업인협회 milk회원을 떠맡기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협동조합이 이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성공리에 수행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빵 공급 역시 이와 비슷한 여건에 있으므로밀크와 함께 배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 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도난, 손실, 재해등의 전반적인 Insurance를 의미한다. 현재 각상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면 Cover Insurance 를 실업인협동조합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자체공제기금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자금 자체가 거대해야 하는데 이의 조성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대 Insurance 회사와의협상을 통하여 Group Insurance 로 알선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다년간 경험에의하여 권유하고자 하는 보험은 상점 Equipments 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해보자는 것이다.

각 Store에는 Cash Register, Freezer, AirCon등의 적지 않은 장비가 있는데 이의 고장이 잦아 년간수리비용만도 상당액이 소요될 뿐아니라, 신속한 Service를 받지 못하면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업은 이런 경우에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며, 조합에서 공제사업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기술자를 확보하고, 긴급하고 염가 실비로 서비스를 한다면 큰 성과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치밀한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업자와의 수리계약을 통하여 수리원을 확보하고, 수리과정에서부터 대금의 지불까지 면밀한 운영을 한다면 조합에게 실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믿는 바이다.

F. 지도사업

지도사업은 협동 조합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조직과 교육홍보등의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분야로서 지도사업 영역에속하는 사업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2)홍보문화에 관한 사항.
(3)교육에 관한 사항.
(4)상품개발및 선정에 관한 사항.
(5)조합원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권리 침해의 건의에 관한 사항.
(7)기타 사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사업은 현재 실업인협회가 시행하는 업무가 대략 이곳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도사업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과제가 있다면 교육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회계 실무교육을 시급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자기가 하고있는 사업의 매일 기장(記帳)의 정리와 사업 손익(損益)이 어느 정도인가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회계용어라도 익혀서 세무감사가 있을 때에는 답변에 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Helper full Operation System을 연구개발하자는 것이다. 어느 상점에서나 장기간의 family Business를 하다 보면 긴급한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며, 그때마다 갑작스럽게 Helper를 구한다는 것은 별따기보다 어려울때가 있다.

조합이 이에 대비하여자격을 구비한 헬퍼를 많이 확보하고, 신원과 능력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조합원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도 역시 시행하기까지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시행규정을 세밀하게 수립한다면 얼마간의 Risk를 흡수하면서 조합원을 돕는 방법의 한가지라고 믿는 바이다.

4. 실업인협동조합의 기구(model)

전술한 바와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는 합리적인 기구및인원으로 편성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model로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이사회
↓
전무 → 감사

총무부장 · 신용부장 · 사업부장 · 공제부장 · 지도부장

구매(購販)과장 · 공판장장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10인이하로 하고, 무보수로 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선임한다.
(2) 전무는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보수를 주며, Full Time으로 한다.
(3) 각부장및 과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유급 으로 한다.

인원편성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전원을 확보하여 Full Operation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지만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우선 유능한 전무 한 사람과 사업부장, 지도부장 그리고 몇명의 사무직원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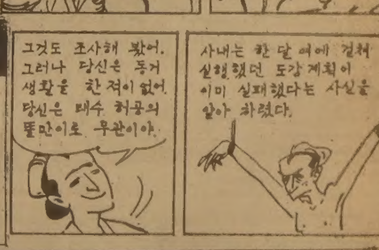
두서없이 적다보니 독자 여러분이 이해할 것인지의 문이나 결론을 말하자면

1. 협동조합은 소수의국한된 조합원을 대상 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며,
2. 주식회사와의 그 성격이 판이하므로 이와 동등하게 생각하지 말것과,
3. 실업인협회와 실업인 협동조합이 동시에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상 필자의 Store 경영의 경험과 과거 협동조합 운동에 관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조직되는 실업인협동조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금후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여, 행정관리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한다면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원을 바라면서 졸필을 마무리짓는 바이다. 끝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⑮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 호수는 지도위에 우습게 표시되어 있지만 내 생각으로 길이가 적어도40마일정도 될 것같지만 아무도 정확한것을 모른다.

타이렐씨가 이호수를 건너가긴 했지만 그당시 호숫가와 작은 섬주위에 살고있던 200여 에스키모들의 캠프에는 가보지 못했다. 헤좌우와 오호토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앙쿠니호숫가에는 전북극을 통털어 가장 큰 에스키모의 부락이 있었던것 같다. 지금은 이 호숫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한적한 곳이긴 하지만 이호수에 가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 사람들의 과거에 관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오호토는 매우 주저하끝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가이드해 줄것을 동의했는데 그는 이여행을 착잡한 심정으로 마지못해 찬성했던것이다. 지난 30년동안 어떤 이할미우트도 그레이트 레이크와 이강을 따라 감히 여행을 해본 사람이 없었고 이지역은 사람이살 곳이 못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흔적만 남아있는 무덤과 유령만이남아있을 뿐이었다. 오호토와 죽은 그의 아버지 엘라이투트나는 앙쿠니에서 제일 큰 부락에서 태어 났기 때문에 이지역은 오호토가 어린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했고 또 가고싶었지만 한편으로 그는 사람이 살지않는 이 황폐된 고향땅을 찾아가는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레이트 레이크위에 위치한 200마일 길이의 강을 따라 가면서 연이어 있는 무덤들 급류 그리고 폭포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자면 한없이 장황해져버린다. 나는 앙쿠니에 도착해서 호수의 서쪽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유명한 키네투아산이 보이기 시작하던 날부터 이야기를 전개해볼려고 한다.

오호토가 그날 뱃머리에 앉아서 그 준엄한 산을 가리키자 우리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우리가 키네투아산으로 접근해가자 강물이 빨라지며 삼각형물이 큰 강폭으로 우리들의 카누가 하나의 나무조각처럼 난폭하게 급류에 휘울아지더니 몇분후에 급류가 만으로 이어지면서 키네투아만의 잔잔한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키네투아산은 우리들 머리위로 쏟아질것 처럼 높이 솟아 있어서 우리는 산그림자속에서 전진해갔다. 우리앞에 보이는 지평선을 따라 살마루가 길게 푸른산록으로 앙쿠니호수의 수면에서 말아 올린것 처럼 보였다. 우리가 탄 카누가 잔잔한 호수위로 미끄러져가는 동안 그 광대한 지역에는 한마리의 갈매기 이외에는우리들을 방해하는 것이 없었고 또 살아 움직이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키네투아미우트는 완전히 없어져서 인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땅은 겉에서 보이는것처럼 완전히 황폐한 곳은 아닌것 같았다.

우리는 키네투아의 산기슭에 내리자마자 완만한경사로 올라가서 강뚝에 올라섰다. 거기서 햇볕에 반사되는 호수의 최남단까지 우리의 시야가 미치는한수많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주 방치되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땅을 내려다보니 바로 옆에서 사람모양을 하고있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비석이었다. 무정하게 보이는 납작한바위들이 작은 기둥을 이루고 서로 불안스럽게 얹혀있는데 호수와 강옆에 뚝을 따라 어느곳에나 서있었다. 오랜세월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놓은 이누콕(사람의 형상)이라고 불렀던 비석들이었다. 이 비석들은 정말로볼품없이. 텅빈 공간에 쓸쓸히 서있었다. 그리고 이들 비석은 얼굴이 없는 형태속에 숨겨져 정체를 감추고 신비에 싸여 지나간 수없는 세월동안 혹심한 겨울폭풍에 끄떡없이 견디어냈던 것이다.

모양이 불명확한 이비석들은 싸늘한 눈을 가진 우리들의 큰 동상들보다도훨씬 생생하고 진실해 보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과거의 추억을 새기거나조각가의 심중을 표현할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기 어려운 외로움을 달래기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미지의 땅을찾아 다니던 첫번째 사람이 이길로 들어왔을때 아직잘 모르는 앞길로 더 나가기전에 어떤 산에서 잠시 쉬는동안 그는 이누콕의 모형을 만들어 세웠다.

(계속)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중동 동창회
연말파티

금년도 중동동문회에서는 X-Mas파티겸 망년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9일(토요일) 오후7시
장 소 : 4035 Goldon Baker Rd. Macho 레스토랑(498-1300)
(Victoria Pk. × Steele Ave. E.) 1 부럭 남쪽코너에 위치함
회 비 : 커플당 $30.00(기프트및 상품이 있음)
연락처 : 회 장-홍사겸(743-5329)
부회장-이용석(363-3687)
총 무-신경식(439-3690)

중동 동창회
회장 홍 사 겸

BB BLOCK BROS
NATIONAL REAL ESTATE SERVICE
칼가리 오일 붐 타운!
칼가리로 이사를 오시렵니까?
비지네스를 찾으십니까?
금주의 리스팅

	SALE	ASKING	DOWN
GEOCERY	$27,000/mon	$84,000.	$35,000.
	30,000	99,500.	99,500.
FAST FOOD	$1,500 /day	$560,000.	$560,000.
	400 /day	71,000.	71,000.
	450 /day	68,900.	68,900.
DOUNUT SHOP	$600 /day	$135,000.	$135,000.

그럼 정월남을 찾아 주십시요.
전화 : (B)403-245-4381
(R)403-246-0211

慶熙同門
송년파티 초대

해마다 년말을 맞이해서 모이는 즐거운 송년파티에 초대합니다.

일 시 : 1981년12월31일 밤11시
장 소 : CHOI'S레스토랑
주 소 : 2432 EGLINTON AVE. E.
연락처 : 669-5084, 789-7544
회 비 : 없음. 단 기부금 대환영
※동문전원이 부부동반 모두 참석하하셔서 즐겁고 뜻깊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품권 추첨있음)

경희대동문회
회장 : 이정호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팜매수리
번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서울藝術祭등 푸짐한行事

創立20周年맞은 藝總 새해 설계

우리 固有文化정리·창달의 기회로

88년五輪대비…차근차근 준비작업

市民體育大會 前夜祭도 주관계획

◇집을 잃고 옛종로구청건물에 세들어있는 藝總회관。申榮均회장은『올림픽에 대비, 잃어버린「예술인의 집」을 되찾는 것이「급선무」라고 밝혔다。

『전국민의 기념비적 제전이 될「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예술인들도 모두가 자세를 가다듬어 준비작업을 해야되겠읍니다. 88서울올림픽은 주최국입장에서 볼때 스포츠대회로 끝나지않고 국제규모의 大文化祭典이라 할 수 있읍니다』

문화예술계의 사령탑으로 재임1년을맞은 藝總 申榮均회장은『88서울올림픽의 문화예술분야를 빛내기 위해서는 藝總이 전반적인 준비작업을 주도해야한다』고 밝히고 산하10개기간협회가 맡고 있는 사업내용을 올림픽문화에맞추어 기획, 88년을 향해 내년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리겠다고 다짐했다.

82년은 藝總창립20주년이 되는 해。이를 기념해서「서울예술제」를 신설하고、서울시가 개최하여 유능한 선수를 발굴、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시민체육대회의 전야제를 藝總이 주관하겠다는것이 申회장의 포부이다.

『현재 각지방에는 향토문화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제가 있으나 서울만은 불모지입니다。따라서 서울에서도 모든 예술형태를 한 자리에 모은「서울예술제」를 내년부터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있읍니다.

중국에「창신」가、일본에「가부끼」가 있듯 우리도탈춤이나 판소리등 고유의 예술이 있읍니다。「서울 예술제」를 바탕으로 고유예술을 종합정리、88서울올림픽에한국의 표상으로 내세울 생각입니다』

이같은 사업을 펴나가기위해서는 지부로돼있는 조직을「서울시예술문화협회」로개편、예총의 지방자치제를도입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올림픽에 대비한 사업추진에는 난제도 많다고 했다。그 첫째가「예술인의집」인 자체회관하나 갖추지 못한것.

『부끄러운 일이지만 셋방을 전전한지 8년이나 됩니다。예술활동이 꼭 건물이나 기금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지만 자체회관 하나없이문화예술의 창달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藝總이 처음부터 셋방살이를 한것은 아니었다。지난65년 당시 시민회관옆에 회관을 세워 자체운영을 해왔으나 세종문화회관건립으로74년4월부터 셋방살이가 시작됐다.

당시 서울市는 세종문화회관이 완공되면 3백평의 사무실을 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보증금3천만원의 임대사무실을 주선해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것.

『그동안 서울市에 지하철본부(문화회관별관)건물과 현藝總건물을 바꾸자는 요청등 회관찾기운동을 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현재 넓고 좋은 건물에 산하10개협회가 북적대고있는데 한달이면 20~30명씩 찾아오는 외국인을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申회장은 올림픽에 대비한 여러가지 사업계획가운데에 이「급선무」이고 지상과제라는 점을 되풀이 강조했다.

國內 처음시도된 미술작품 保證書

제3회 韓國畵廊協會展서 발부

50년以前에 제작된作品 대상

作家이름·年度·규격등을 明示

鑑定委서 僞作가려…不況타개책 일환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미술作品에대한 保證書제도가 선보였다。화랑에서 판 작품이 어느 작가의 작품인가를 보증하는 이 제도는 지난 8일 개막된 제3회 韓國畵廊協會展에서부터 실시됐다。작품보증서는 보석상이나 시계점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와 비슷한 것으로 단가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대까지 이르는 미술품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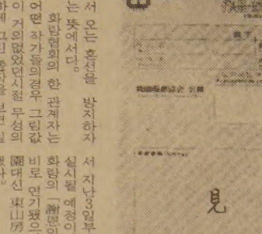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도가 실시돼왔으나 국내에서는 이같은 제도가없어 3~4년전엔 많은사람들이 高價에 가짜 미술품을 사들이는 소동을 빚었었다。

이것은 결국 미술품전반에대한 不信으로까지 번져 오늘날의 미술계불황을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기도했다。

이번에 실시된 보증서는 화랑협회산하의 전국 34개화랑(서울19·지방15)에서실시되는것으로 보증서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규격등을기록하여 사진도 첨부할수있게 했다。

이 보증서가 발부된 작품의경우 매수인이 작품의 가짜 여부에 의문이 나면 화랑에 鑑定申請을 낼수있도록 돼있다。신청을 받은 화랑은 화랑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감정을거쳐 그 관정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해주도록 제도화했다。

감정위원회는 해당화랑이 아닌 다른화랑의 대표, 미술평론가나 작가등 4~5인으로 구성된다。문제작품의 작가가 생존해있을 경우 작가도 초빙된다。



◇한국화랑협회가 발부하고있는 作品保證書。

이는 작가자신도 자기그림인지의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僞作의 수준이 높으면 작가 자신도 속을수있으며 연로한 작가들이 수십년전의 작품을 기억하지못한데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자는 뜻에서다。

화랑협회의 한 관계자는 어떤 작가들의경우 그림값이 거의없었던시절 무성의하게 그린 졸작을 보면 일부러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기도한다는 것이다。

감정위원회의 구성내용은 해당화랑이 모르도록비밀을 유지하도록돼 있으며 감정결과 가짜라는 판정이 내리면 작품거래는 취소되고 화랑측은 대금전액과매도일로부터의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돼있다。

보증미술품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규정이 없으나 古美術品이 아닌 현대 미술품으로 제작연대가 50년이전인것을 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 靑田 李象範 以堂 金殷鎬화백등 동양화6大家들같이 얼마전까지 작품활동을했던 작가들의 경우 젊었을 적에 내놓은 작품은 50년이넘은것도 대상이된다。

화랑협회가 미술작품에 대한 보증서제도를 마련하게된것은 마치「先史時代」같은 우리나라의 미술품유통구조를 체계화하는 한편 불황을 타개하기위한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작품보증서 제도가 실시된 화랑협회展 자체도 원래 松園·明東·高麗화랑에서 지난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松園화랑의「謝恩의 걸작전」시비로 연기됐으며 장소도松園대신 東山房으로 바뀌야했다。

이「謝恩展」은 지난달 26일부터 1주일동안「고객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싸게 그림을 판다」는 명목으로 실시됐던것。이것이 매스컴에서「30~50%할인판매」라고 보도되자 다른 화랑들이 타격을 입게되는등 화랑가가 들썩거렸었다。

이 문제를두고 松園측은『화랑들이 그동안 너무비싸게 그림을 매매한데 대해 반성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하면 다른 화랑들은『그림값을 냉장고값처럼 할인판매를 할수있는 것이냐。大家들의 畵작을 제값에팔아 오히려 말썽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이 시비는결국 우리 화랑가의 고질적인 병폐를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하에서 보증서제도자체도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것인지미지수다。

우선 인정에 흐르기쉬운 미술계인사들이 얼마나 소신있게 감정을 할것인지 의문인것이다。

주례사같은 미술비평밖에 없는 우리 미술계에서 소신있는 감정이 가능할것인지도 궁금한 일이다。감정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비밀로 하겠다는 협회의 다짐도 우리의 현실상 실현이 힘들며 자칫하면「鑑定에 대한 感情」이 심각해질것같다。

고객들과 화랑들의 평소 친분관계로 이제도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현재 화랑에서 계속그림을 사들이는계층은 2백여명정도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화랑측과 친교를 맺고있다。이들은 또 감정자체가 필요없을만큼 감식안도 있어 보증서를 외면할 가능성도 짙다。이들이 보증서를 거들떠보지 않을때 보증서를 챙기는것은 다방에서 세금영수증받는것 같이「어색한 것」이 될수도 있다。

화랑측이 보증서에 성의를 다한것인지도 의문이다。보증서가 실시되기 전부터 일부 화랑은『보증서에 일일이 사진을 붙이는 것은 번잡하다。고가의 작품이나 고객이 특별히 원할때만 사진을 붙이겠다』고 말하고있다。

만일 사진없는 보증서가 나오게되면 보증서제도의 실패는 가속될것이다。

이제도를 추진·실현시킨 權相凌화랑협회 회장은『작품보증서가 실패할경우 한국미술시장의 근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갈것이다。협회의 사활이걸린 문제로보고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장담하고있다。【梁平기자】

"韓·日 文化교류基金 10億엔 모금중"

日民社黨委長 회견

訪韓중인 사사끼료오사꾸(佐佐木良作)日本民社黨위원장은 5일 韓半島의唯一합법정부인 대한민국과 日本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增進시키기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韓日간의 文化교류를 위해 10億円목표의 民間레벨 基金조성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사진〉

사사끼위원장은 이날 하오 公式訪韓日程을 마친뒤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직접 한국을 방문해보니 그동안 民社黨의 정책이었던 對韓友好정책이 올바른것이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보다 폭넓은 양국관계의 底邊확대를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韓日경제협력관계에언급,『현재 정부레벨에서 교섭이 진행중인만큼 野黨의 입장에서 介入할문제는 아니다』고 전제한뒤『그러나 원활한 타결을위해 실마리를 찾도록노력、양국이 만족할만한 해결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사끼위원장은 韓半島통일은 국제정세의 產物로서 빠른시일안에 이뤄질 전망은 없지만 통일의 환경조성을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통일이 실현될때까지 韓半島에는 평화가 共存되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사끼위원장은 6일 慶州를 관광한뒤 7일 離韓한다。

美術話題

張遇聖의 총정리 호화판畵集「月田」

원로화가 月田 張遇聖화백의 예술과 생애를 보여주는 호화판화집「月田」이 지식산업사에서나왔다。

3백2페이지의 양장지에 1백20점의 컬러및흑백화보가 실린 이책은月田이 작품활동을 시작했던 23세때의 작품「早春」과「歸牧」(1935년)에서 최근 작품인「風竹」(1979년)과「墨蘭」(1981년)까지를 두루 싣고있어 한대가의 작품경향이변모해온 과정을 잘보여주고 있다。

以堂 金殷鎬화백에게 사사한 月田은 鮮展에 출품하여 4회의 특선과 3회의 수상을 기록했는데 그의 작품경향중 초기에해당하는 이때의 작품은 以堂의 영향으로 美人圖와 人物圖가 많았으나 해방이후부터는 화조와 산수화를즐겨 그렸다。

이 화집은 뒷부분에 月田의 제자들인 朴魯壽화백과 李烈模화백이 쓴「月田의 생애와 예술」및 평론가 金潤洙씨의 작품해설을 싣고있다。

◇月田 張遇聖화백의 초기작품인「歸牧」。1935년도에 그린 이 그림은 지금 정무장관실에 걸려있다。

藝術院회원 17명 最近作 한자리에

◇雲甫金基昶화백의「작품A」

한국화단의 정상급이라 할수있는 藝術院 美術分科會員작품전이 13일까지 현대화랑에서 열리고있다。

금년으로 세번째인 이전시회에는 동양화부문의 張遇聖、千鏡子、李惟台、金基昶화백、서양화부문의吳之湖、朴泳善、朴得錞、柳景埰、劉永國、金源、李鍾武、李俊화백、조각의 金景承、金鍾瑛씨、공예의 李順石씨、서예의 裵吉基、金忠顯씨등 총17명의 작가가 43점의 작품을 출품하고있다。

이들은 대부분 60대이상 원로작가들이자 국내최고수준의 작가들로서 문교부는 제작년부터 이들의전시회를 주최해왔다。

그러나 1、2회는 景福宮내 예술원회관에서 열려 일반관람객들이 거의 감상할 기회가 없었다。

원로화가들의 노작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일반인들의 무관심속에서 끝나자문교부는 금년부터 현대화랑에 교섭하여 전시회를 열고있다。

전시작품 거의가 작년이나 금년도에 그린 근작들로 대가들의 최근 작품경향을 한눈에 볼수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낯익은 경향이지만 2·3년전부터 비구상을 추구해온 雲甫 金基昶화백은 서예작품을 연상케하는「作品」시리즈를 출품하여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UAE、韓國축구팀초청

내년2월 國際축구大會에 불가리아·루마니아등도

【매나마 (바레인) 7일=聯合】 한국은 내년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국제축구대회에 모로코·멕시코·불가리아·루마니아등과함께 초청됐다고 UAE의 두바이에서 발행되는 영자일간 칼리즈·타임즈가 7일 보도했다。[illegible]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史의名言

詩人。본명 廷湜。평북郭山사람。金億의 영향을 받아 1922년「개벽」에 진달래꽃등 50여편의詩를발표, 文壇에 등장。民謠的가락으로 나라 잃은 겨레의 恨을 나타냄。「진달래꽃」「素月詩集」등。

「人生은 寄요, 死는 歸외다」

人生은 寄요 死는 歸외다

金素月 〈1902~1933〉

素月이 外家가 있던 龜城郡西山面南市에서 新聞社支局을 경영하던때 스승인 岸曙 金億에게 보낸 편지속의 한 귀절이다。「人生은寄」라함은 杜詩엔가 어디에 나오는 글귀같지만 아뭏든 이시절,그는 10년간을 이곳에 살면서 일은 잘안되고 살림도 어려웠던것 같다。이때의 글월엔 이곳에 온지 10년,江山은 依舊하나 人心은 많이 변했다느니하는 말들이 보인다。그의 詩는 지금도 젊은이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또한 노래로도 적지않게 作曲됐다。素月의 詩만큼 많이 애송된것도 아마 드물것이다。

그를 서정시인이라고도 하고 민족의 恨을 노래한 天才詩人이라고도한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무책임한 사람이 었고 남편으로서도 낙제생이었다。妻를 청상과부로 만들었고 4男2女의 자식들을 무정하게 離世했다。

未亡人은 아이들에게「제발 글쓰는 사람만은 되지말아달라」고 애원했고「그때 살아봐야 좋을것없으니 같이죽자할때 따라 죽을 것을」하며 신세를 한탄하기 한두번이 아니었다한다。

素月은 29세때 거의 1년간 가벼운 정신질환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悲哀感에 사로잡혀 모든 의욕을 잃어 술취하는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한다。그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더 외로움이 심했고 그 슬픔은 육친의 정보다 더 깊었다는것이다。

그는 多作이었다。그것은 감정이 풍부했다는 증거임과함께 말을쓰는 기술이 非凡했다는 이유도 될것이다。

素月은 서정시만을 썼다。

그에게는 천편일률적인 센티멘탈리즘만이 유일한 근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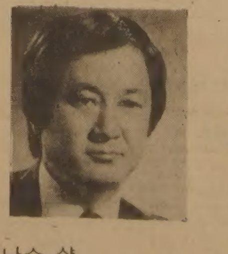
누구나 젊은시절엔 感傷을 사랑해 마지않거니와 素月의 젊음은 언제까지나 이感傷의 風土에서 다른世界로 올라갈줄을 몰랐다。

그러나 어떻든 詩人은 고독했어도 詩는孤獨하지않았다。

어쩌면 世代의 呼吸과함께 영원히 살아서 남을는지 모를일이다。

MACHO 버거 레스토랑
● 아담하고 조용한 장소로써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 연말연시 각종파티나 모임에 적합합니다.
● 술도판매합니다.
● 파티석 70석
● 파킹편리하고 음악및 시간은 예약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니 연락주십시요.
전화 : 498-1300 (MR. 리)
Steels E / Gorder Baker / Finch / Victoria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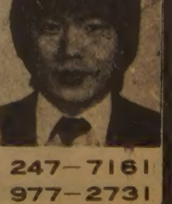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 W. Tor. Tel : 961-3111



이대환 不動產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쪽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렌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년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세일즈맨 신영희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燕山主의 魅力 <14>

한국의 恋人들

一長一短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집권초기엔 슬기롭고 聰明…칭송할만한 善政도 베풀고
民生 안정위해 強·竊盜엄벌、本人이외 아비까지 목베

어떤 개인의 품성과 행적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왕인 경우 더욱 그렇다。흔히 역사가 옳게 심판한다고 말한다。그러나 예외가 있다。연산왕이 그 장본인이다。그는 잔인무도한 폭군으로만 불리고、왕이었건만 왕으로 호칭되지도 않는다。연산은 실로 억울하다。잘 알려지지 않은、하지만 역사에 뚜렷한 그의 공적을 살펴 그의 전부를 보자。

연산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밝혔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그는 그를 가리켜 어진 임금이라고 칭송해도 좋을 만큼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연산은 정기적으로 효자、효녀、효부를 조사하여 표창하고 우대하였다。또 장수자도 조사하여、격려하고 쌀을 하사하였으며 궁중에서 해마다 몇차례씩 양로연을 열었다。신하(좌의정 李克均)가 병들자 의원을 보내 치료케 하고 약도 내렸다。

궁궐 뜰에 양 세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시신(侍臣)이 아뢰자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랬다』하면서 곧 없앴으며 다시는 양을 들이지 않았다。어느 왕이나 그랬듯이 관행대로 농사짓는 것을 격려하고、누에치는 것을 시찰하였으며 빈민구제에도 힘썼다。

즉 즉위 10년째인 1504년 윤4월에 가뭄이 심하여 백성이 굶주리자 경창(京倉)을 열어 구제하였으며、특히 적령기가 지났으나 시집가지 못한 노처녀를 한성부와 각 관찰사가 조사하여 관비로 혼수감을 장만、혼인케 하였다。

1502년 여름은 지독한 무더위였는데 의금부(義禁府)와 전옥서(典獄署)에 사관(史官)과 내관(內官)을 보내 자세히 조사케 하고、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이 더위를 먹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옥의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문과 판결을 정밀 신속하게 하라 명령하였다。또 죄수가 자살하자 옥관(獄官)을 문책、파직시켰으며 죄수가 많아 옥방(獄房)을 늘려야겠다는 형조(刑曹)에 대하여 신속히 판결하고 경범을 조기 석방할 것이지 옥방을 늘리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강도나 절도범은 엄벌에 처하여 민생의 안전을 도모하였다。1505년 4월에 내린 명령을 보면、강도는 본인은 물론 아비와 아내까지、참형(사형)에 처하고、장물아비 역시 참형으로 다스리고、이웃으로서 강도범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곤장 1백에 처하여 일가를 섬으로 귀양보내며、절도범도 초범일지라도 참형하라 하였다。

또한 대군(大君)등 세도있는 종친가(宗親家)의 종이 주인의 권력에 기대어 횡포를 부리는 자가 심심찮았는데 중벌로 다스리라 하여 백성들로부터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 자신이 사치스러웠지만(王中王을 자처하여 자신의 사치를 정당화 하였음) 신하와 백성의 사치풍조를 엄금하였다。

1499년에는 24세를 맞는 11월7일에 탄신하례를 정지시키고、11월28일은 왕비의 생일이었으나 역시 탄일하례를 정지시켰다。그리고는 1502년 6월에 사치금령을 내렸다。상류층의 호화스런 혼례를 금하는 금령을 보면 이렇다。

『채단과 침구에 사라·능단을 쓰는 사람과、갓장식에 금은주옥을 쓰는 사람、갓끈에 산호·유리·명박을 사용하는 사람、동뢰연(同牢宴)외에도 유밀과를 사용하는 사람、화려하게 꾸민 말을 먼저 보내는 사람과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 사라 능단、의복과 금은주옥 패물을 주는 사람은 당상관(堂上官)자녀라도 처벌한다。혼인하려면 예식날짜를 미리 관청에 신고하여 관리를 보내 검찰하도록 하고、남자 관리를 보낼 수 없는 곳에는 의녀(醫女)를·보내 단속하되、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훗날 발각되면 가장(家長)과 관할관원을 중죄로 다스리며、이 금령을 피하려고 금물(禁物)을 사전 사후에 보내거나 받으면、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는 소문만으로도 처벌한다』하였다。뿐아니라 국방에도 주력했는데 변방의 경비를 엄중히 하도록 명령하고、1년동안 아무 사고도 내지 않은 책임자와 군졸을 논상(論賞)케 하였다。

그리고 말달리기와 활쏘기 연습을 장려하였다。그 자신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기도 하였지만、가끔 신하와 종친을 거느리고 무예(武藝)를 겨루었다。1497년 1월에 문무신하를 거느리고 활쏘기를 시험하여 우등한 자 3명은 1계급 특진시키고 그 다음 3명은 한 고(考·인사고과 상중하의 상)를 주고 꼴찌는 한 고를 깎았다『조선시대 인사고과법에 의하면 하고는 좌천이거나 승진보류였고、두번 하고면 파면이었다。』또 사냥에 나가 말이 노쇠하여 처지거나 말탄 자가 떨어져거레 쳐져도 나무랐다『그러므로 무인들로부터는 환영받았지만、문신들은 내심 반발하였다』。뿐만아니라 활공장이를 훈련·우대하고 활을 만들 좋은 나무를 징발하였으며、상비토록 조치하였다。또 말목장을 정비·확장하여 양마(良馬)를 양육케 하였다『그렇지만 이 역시 문신들로부터는 왕이 백마를 보양제로 쓰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란 비난을 받았고、왕이 후원에서 말을 교미시키고 관람하기를 즐긴다고 비난하였다。성종때에도 대사례(大射禮)가 자주 열렸지만 연산때 자주 거행되었고、자주 사냥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타기와 활쏘기에 무능한 문신을 면박함으로써 반발을 샀다。더우기 고래를 사로 잡고 곰과 범을 생포하라 한것이 왕도를『벗어난 것이라 하여 비난이 가중되었다。고래사냥을 어업진흥의 계기로 삼을 수는 없었을까?』。

인간은 누구나 두 얼굴을 소유하고 있다。아무리 선한 자라도 악한 일면을、악인이라도 선한 일면을 지녔다。단지 그것이 본인에 의하여 자제되고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평가된다。연산의 두 얼굴은 너무 개성이 뚜렷하다。어질고 유능한가 하면 난폭하고 바보스럽다。그런데 연산은 바보스럽고 난폭한 군주로만 평가되어 왔다。

정신의학자들이 연산을 정신병자로 진단하기도 하고 간질병자로 진단하기도 하지만 연산은 이러한 불치병자가 아니었다。단지 연산은 술을 좋아한 나머지 술주정을 두 세번하였으며、흥에 겨워 춤을 추었고、노래를 불렀으며、사랑하는 여인이 죽자、불안고 통곡했는가 하면、어머니의 피적삼을 안고 우는 바람에 일국의 왕으로서 체통을 잃었다。당시 양반은 노래부르지 않고 춤추지 않으며 소리내어 울지도 않는 법이다。

그런데 왕이 그러했으니 신하들이 어리둥절한 나머지 등을 돌린 것이다。연산은 순진했고 파격(破格)의 멋을 즐겼지만 백성들은 왕의 그러한 멋을 이해하지 못했다。그랬기 때문에 연산을 버렸다。중종반정이 그것이다。그러나 당시에도 연산왕을 옳게 평가한 예도 있다。아성잡기(鵝城雜記)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본성을 잃긴 하였으나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는 자못 슬기롭고 총명한 임금으로 일컬어졌었다。』

歷史로 본 이 週의 人物들

□退溪 李滉 死亡
□英詩人 밀턴 出生
□스웨덴、발명가 노벨 死亡

◇李 滉 ◇밀 턴 ◇노 벨

노벨 全財產을 翰林院에 기부해 노벨상 기초 이뤄
밀턴 왕정 복고후 영문학의 최대 걸작 失樂園내놔
李滉 李栗谷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朱子學의 巨星

▲退溪 李滉 死去(1570·12·8)

進士 埴의 아들로 禮安에서 출생하여 7개월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숙부(堣)에게서 양육。6세때 천자문을、12세에 숙부에게 論語를 배웠다。

15세때부터 詩〈가재〉〈영회시〉등을 짓고、19세때에는〈性理大全〉、20세에는 周易을 독파、23세에 서울로 올라와 성균관에 入學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홍문관 수찬、홍문관 校理、대사성、부제학、공조참판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고향에 돌아가 최초의 賜額書院인 도산서당을 세우고 학문과 諸生의 교육에 힘썼다。

李珥가 그를 방문한것도 이때의 일이며、명종이 그가 관직에 나오지 않음을 애석히 여겨 畵工에게 명하여 陶山의 경치를 그려오게 하여 완상한것도 이때의 일이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중국의〈朱子全書〉를 본뜬〈朱子書節要〉를 50세때、주자가 지은〈역학계몽〉의 數理的 연구의 결정인〈계몽전의〉는 57세때、59세때에는〈宋季元明理學通錄〉이라는 방대한 서적을 저술、문인 奇大升과 함께 四端七情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으며 徐敬德 후배들의 잘못을 지적한〈心無體用辨〉、기타 만년에 이르러〈心經後論〉등을 지었다。

그는 주자의 理氣二元論을 발전시키고 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理가 발하여 氣가 이에 따르는 것이 四端이며 氣가 발하여 理가 이것을 타는(乘) 것이 七情이라고 주장、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奇大升과의 논쟁은 四七分理氣與否論의 발단이 되었고 뒤에 이 학설을 반발하고 나선 기호학파에 대해서 영남학파를 이루어 동서당쟁은 이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되었다。

▲英詩人 밀턴 출생(1608·12·9)

런던에서 출생、케임브리지大學을 졸업하고 6년간 호톤에서 사색과 창작을 하여 가면극〈코머스〉〈리시다스〉〈랄레그로〉〈일펜세로조〉등을 썼다。프랑스 및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감독교회체도에 반대한〈교회규율의 개혁〉을 발표하였다。크롬웰의 공화정부를 옹호하는 작품을 많이、발표하였으나 과로의 탓으로 시력이 쇠퇴하여 1652년에 드디어 실명하고 말았다。왕정복고와 함께 생명이 위태하였으나 간신히 피하여 세번째의 혼인과 더불어 詩作에 몰두하였다。1667년에 구약성서의 樂園을 잃은 이야기에서 기초한〈失樂園〉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영문학에 있어서 최대 걸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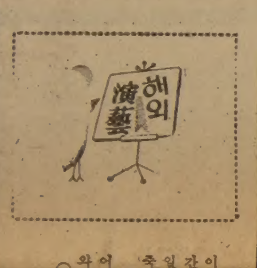
또한〈復樂園〉에서 神과 사탄의 대결을 썼으며 1671년에〈투사 삼손〉에서는 그리스 비극의 형식을 빌어 소경의 삼손에 기탁하여 역경에 신음하는 자기 자신의 고뇌와 신의 섭리에의 신앙을 노래했다。

▲스웨덴、발명가 노벨死去(1896·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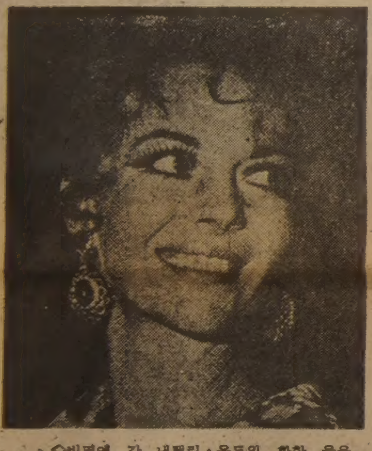
스톡홀름에서 출생하여 독학으로 발명가로서 이름이 알려졌다。아버지를 도와 폭발약의 제조에 종사하다가 후에 미국에 유학하여 에리크슨에게서 師事하였다。

1863년 니트로글리세린과 보통 흑색화약으로 만들어지는 火藥을 발명하고 1867년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였으며 또 최초의 無煙火藥을 발명 하였다。

그밖에 도합 129종의 발명특허를 획득하였다。그는 폭약과 무연 화약등의 공업적 생산을 목표로 자국을 비롯한 스코틀랜드、영국、독일등에 방대한 공장을 시설함으로써 유럽 제일가는 부호가 되었다。세계평화와 과학의 자료를 갈망하던 그는 죽음에 이르러 유언으로써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에 자신의 유산을 기부하였고 그것으로 노벨상 제도가 1896년에 설정되었다。이 상은 매년 물리·화학·의학、혹은 생리학 방면에서 가장 귀중한 연구를 공표한 사람과 이상주의적인 가장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표한 사람、그리고 인류평화를 위하여 가장 공헌을 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며 1969년 경제학상이 신설되었고 상금은 평균 4만달러다。



귀엽고 깜찍한 갈색머리 美女
비명에 간 女優 내탈리·우드의 一生



◇비명에 간 내탈리·우드의 환한 웃음.

50년대 후반의 代表的스타
팬엔「草原의집」으로 낯익어

할리우드에 또 하나의 별이 떨어졌다。윌리엄·홀든이 간지 1주일만인 지난달 29일 미녀배우 내탈리·우드가 죽어간 것이다。

귀엽고 똑똑하며 演技力 뛰어났던 그녀에게 현 남편 R·와그너와의 사이에 난 브루크(7)와 전남편 리처드·그레그슨과의 사이에서 낳은 나타샤(11)등 두 딸이 있다。

「초원의 빛」「이유없는 반항」「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등으로 국내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녀는 지난 40년동안 50여편의 영화를 남기고·결국 횡액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1백57㎝의 단구에 갈색 머리의 아담한 미녀 우드는 1938년7월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러시아系 3자매의 둘째딸로 태어났다。본명 나타샤·구르딘인 우드가 처음 카메라앞에 선 것은 그녀 나이 4세때였다。

우드一家가 살고 있는 산타로자로에 현지 로케 차 왔던 어빙·피셸 감독의 눈에 띈 것이 계기가 된것。

깜찍하고 귀여운 우드를 본 피셸 감독은 즉시 그녀를 兒役으로 기용、일부러 우드를 위한 장면을 추가해 찍었다。

舞蹈에·대단한 소질을 보였던 우드는 이때부터 리즈·베일러、마거리트·오브라이언 등과 함께 할리우드의 대표적 兒役스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 兒役으로부터 성인배우로의 전환점을 이룬 작품은「理由 없는 反抗」。제임즈·딘의 애인役으로 성공(아카데미 助演賞후보)하면서 50年代 후반을 대표하는 할리우드女優중 톱스타가 됐다。

우드는 줄곧 인기 정상을 달려온 영광의 스타였지만 오스카賞에는 여러 차례 후보에만 올랐을뿐 결국 수상의 영예는 안지 못했다。

다만 골든 글러브상과 한때 시절 페어런트·매거진이 주는 兒役스타상을 세 차례 수상하는데 그쳤다。그러나 76년 샌프란시스코영화제는「내셜리영화의 세계」라는 3시간짜리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그녀를 감격케 했다。

이 자리에선 그녀가 75년까지 출연한 영화 45편 가운데 25편이 발췌·상영됐는데 상영이 끝난후 우드는 1시간에 걸쳐 팬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했다。

우드를 톱스타로 끌어 올린 작품으로「理由 없는 反抗」을 비롯「초원의 빛」「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버터진 本能」「34번가의 기적」등등。

「이유없는…」에선 주디、「草原…」에선 女高生 딘、「34번가…」에선 모린·오하라의 귀여운 딸、「버려진…」에서는 S·맥퀸의 愛人으로 열연했었다。

우드는 TV연기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지난 76년「뜨거운 양철 지붕위의 고양이」에서는 와그너와 함께 출연、에미상 후보에 까지 올랐고「지상에서 영원으로」로는 골든 글러브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도 결혼생활은 평탄치가 않았다。57년 우드는 ABC-TV의 시리즈物「마음과 마음」에서 주연했던 와그너와 결혼했으나 이혼、69년 리처드·그레그슨과 2번째 결혼을 했다。하지만 이 결혼도 길지는 않았다。

72년 그녀는 다시 와그너와 再結合、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우드는 사고당시 크리스토퍼·월켄과 공연으로 메트로·골드윈·메이어작품의「브레인 스톰」야외녹화를 준비하고 있었다。〈準〉

해외 걸작 만화

◇"어이 알빈! 내 멋진 장난감 침세트를 보겠어?"
◇"하… (하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멋있다는거야"
◇"피 융"
◇"바로 독침 세트였단말야"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

시카고 미시간 애비뉴에서 있었던 일이다。1차선 우회로에서 잘못알고 2차선으로 우회전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렸다。대뜸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요」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라고하였다。

필자에게는 마침 이미 받은 교통위반 티킷이 있었는지라 머뭇거리며 내놓지 않으려다 하도 다그쳐묻는 바람에 ticket을 내놓자 그것을 본 경찰관은「내 마음 변하기전에빨리 사라져라」Get out of here before I change my mind. 라고하여 서모면한적이 있었다。

맨처음에는 공손하게 나오다가나중에는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웃음도 나왔지만 재수가좋았던 것만은 사실이다。각설하고 May I~로 시작되는 표현은 많이있다。「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요」May I see your I.D. card, please?이때 I.D. card는 identification card(신분증)의 준말이다。

A :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
B : Officer, What did I do wrong?
A : You went through the stop sign.
B : I'm sorry, I didn't see a stop sign at the corner.
A : There is a four-way stop at that intersection.
B : I didn't see it.
A :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요。
B : 경찰관, 제가 뭐잘못됐나요?
A : 정지사인에 지나갔읍니다。
B : 미안합니다。구석에 있는 정지사인을 못봤읍니다。
A : 그교차로에는 네군데에 스톱사인이 있읍니다。
B : 못봤어요。

※주license:면허증 go through : ~을 통과하다。four-way stop: 네거리에 모두 스톱사인이 있는것。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상대방과 만날 약속을 하게될때 「가장 편리한 시간이 언제인가」고 얘기할수있다。이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여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라고한다。이때 전치사 to가 아니고 for라고 하는점에 유의하기바란다。

「브라운 박사가 가장 편리한 시간이 언제인가요?」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Dr. Brown? 이와같이 사람이름만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5시이후에는 언제든지 좋습니다」라고 하고싶을때에는 Anytime after five will be fine. 하면된다

또한 pick up해주겠다는 말은 상대상을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차를 태워주는것이고 곁에있는 사람을어느곳까지 데려다 주는것은 pick up을 사용하지않고 drive나 take를사용한다。예컨대 「댁에까지 모셔다드리죠」I'll drive you home. 혹은 I'll take you home. 이라고한다。

A : If you're not doing anything tonight,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B : Fine with me.
A :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B : Anytime after five will be fine.
A : O. K. I'll pick you up at half past five. Bye.
B : Bye.
A : 오늘밤 할일이 없으시면 함께 저녁식사하시는게 어때요?
B : 좋습니다。
A ; 가장 편리한시간이 언제입니까?
B : 5시이후에는 아무때나 좋습니다。
A : 좋습니다。5시30분에 차로 모시러 가겠읍니다。안녕。
B : 안녕。

※convenient: 편리한 If you're not doing anything tonight, ~: 오늘밤 별로 할일이없다면。no complaints:불평이 없다는 뜻이니 좋다의 뜻이다。

본 칼람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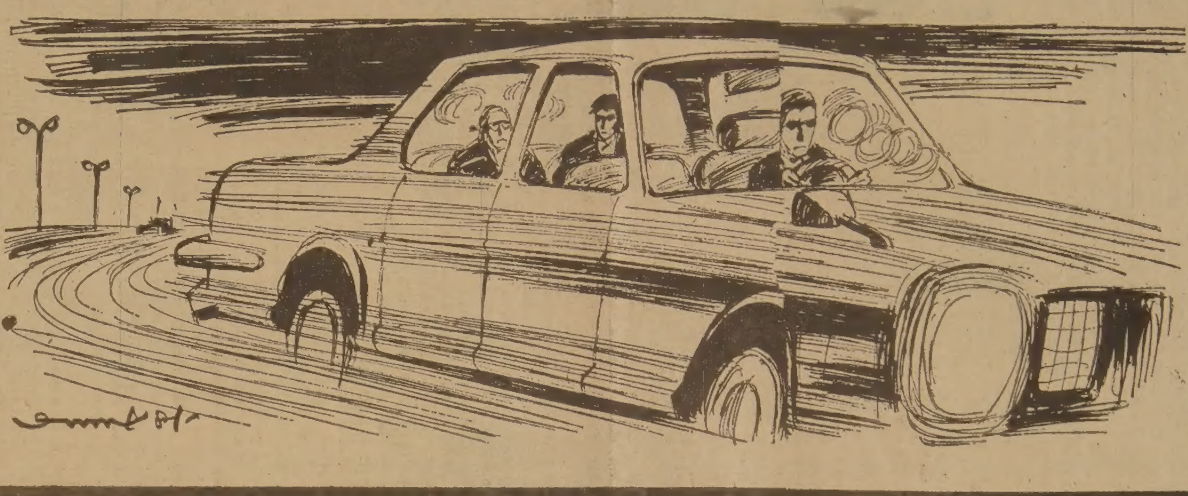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 BETA(3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⑤③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지난줄거리

김회장의 살해음모와 치밀한 도청장치로 사방이 막힌 감옥속에 사는 기분이었지만 김회장은 거뜰답게 태연했다。사위와 자식들의 살해음모를 알면서도 그는 태연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총찬은 넘치 형의 도움으로 김회장을 무사히 보호하게 된다。유산상속에 대한 중요한 일을 마친 일행이 흡족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수고를 했네。」

김갑산 영감이 통방이에 깊숙이 기대며 이렇게 말했다。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아직 그 말씀 하시긴 이릅니다。우린 지금 쫓기고 있읍니다。」

운전석에 앉은 넘치 형이 백미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뒤돌아 보지 마세요。모른체 하세요。」

넘치 형이 재빠르게 말했다。나는 넘치 형이 들려주는 백 미러를 통해 우리 뒤를 쫓아오는 것 같은 몇대의 차를 노려보았다。

「형, 속력 내요。어서。」

내가 재촉했다。김갑산 영감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아무 말도 할것 같지 않았다。

「눈치 채면 여기서 덮친단말야。강 건너기 전엔 눈치 채게 해선 안돼。재들도 강 건너야 시작할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 건너야 호젓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넘치 형이 나 보다 한끗 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미행이 아까부터 시작된 모양인데도 넘치 형은 이제야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그만큼 치밀한 성격이었다。

「속력 좋은 차 두대, 튼튼한 차 두대야。」

넘치 형이 한 손을 뒤로 빼서 조그만 깡통을 내밀었다。

「이게 뭐요?」

「폭약이다。조그맣지만 성능 좋으니까 조심해。심지에 불 붙이고 10초 기다려야 돼。넌 저 커브에서 뛰어내려。」

「형은?」

「난 회장님 책임질테니까 넌 까만차 두대만 바람 빼놔。그리고 황변호사한테 가봐。그쪽이 더 급할지 모르니까。」

「저 자식들 총알(총) 잘 박겠죠?」

「노란딱지 붙은 게 연막탄이니까 알아서 해。」

우리가 작전계획을 짜는동안 김갑산 영감은 눈을 감은 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내가 김회장의 어깨를 잡았다。김회장은 눈을 뜨고 가볍게 웃었다。

「날 여기 내려주고 가게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할일은 다 끝냈잖은가。」

「유서도 뺏겼을지 모릅니다。」

「거기 자네들 사람 있잖는가。」

「믿을수 없어요。아무 말씀 마시고 가만 계세요。제가 엎드리라고 하시면 시트를 잡고 엎드리세요。」

「나 때문에 괜히 고생들 하네。」

김회장은 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다리를 건너가자 마자 넘치 형은 속력을 놓았다。나는 뒤 돌아 보았다。자동차 네대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두 대는 우리 차의 방향을 막기 위한 것 같았고 나머지 두대는 우리가 탄차를 박살내기 위한것 같았다。

「지프차 조심해라。」

「알았어요。」

「돈다, 준비 해。」

나는 김회장을 엎드리게 해놓고 문을 열었다。넘치 형이 몸을 비틀며 핸들을 마구 꺾었다。

「뛰어!」

넘치 형 목소리가 강렬했다。자동차는 커브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나는 재빨리 뛰어내려 언덕 아래로 굴렀다。넘치 형은 둑길을 타고 내달렸다。

라이터를 켜 폭약의 심지에 불을 당겼다。자동차 두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커브길에서 회전했다。

나는 폭약을 둑 위에 던졌다。앞서 달리던 차가 폭약을 통과했다。뒤차가 커브를 돌아 나왔다。

폭약이 터졌다。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다。차에서 뛰어 내리는 사내들 손엔 권총이 들려져 있었다。

쉭쉭쉭쉭。

무서운 마찰음이었다。내가 던진 표창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네명의 사내를 맞혔다。

나는 언덕을 뛰어 올라가 뒤따라 오는 지프의 속력에 당황했다。무서운 질주였다。네 사내가 놓친 권총을 발길로 걷어찼다。

폭약은 지프 앞에서 터졌다。지프가 급정거 했다。바싹 붙어 달리던 랜드 크루저가 지프를 들이받았다。지프가 충격으로 굴렀다。

랜드 크루저에는 건강한 사내 둘이 쓰러져 있었다。두 사내를 끌어내리고 표창 맞은 사내 가운데 나이가 들어보이는 사내를 운전석에 앉혔다。

능청·떨지마, 허튼짓하면 밑천까지 잘라 버릴거야
형님을 알거지로 내쫓은 놈이 김갑산 늙은이라구

「허튼 짓하면 작두질 당한다。황변호사 있는 데로 가자。」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작두질이란 형벌이 얼마나 지독스러운 것인지 아는 녀석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능청 떨지 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

「너, 회를 쳐야 정신 차리겠어?」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모시든지 하죠。」

「결례가 그렇게 가르치드냐?」

「예?」

「이 새끼야, 결례가 그 따위로밖에 안가르쳤냐구。」

「결례 형님 아세요?」

「네 밑천 확 뽑아주랴?」

나는 녀석의 사타구니를 잡고 목을 눌렀다。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봐줘요。하란대로 할께요。」

녀석이 다급하게 소리 질렀다。

「잔소리 더하면 채칼질 한다。이거 봐냐?」

「알았어요。갑니다。」

녀석은 내 손가락에 끼여있는 반지를 보더니 갑자기 고분고분해졌다。채칼질이란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결례 패거리라면 구차하게 설명하고 겁주고 할 필요가 없었다。행동으로, 그것도 무식한 행동으로 보여주는수밖에 없었다。왕초인 결례 밑에서 배운게 그것이었다。

이렇게 큰일을 청부맡을수 있는 조직은 결례 패거리밖에 없었다。결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해방되기전부터 왜놈들을 못살게 굴던 지하조직이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결례라고 하는 두목은 여전히 비밀리에 숨겨되어 내려오는 역사가 깊은 패거리들이었다。

「너, 결례 본적 있어?」

「없어요。」

「그럼 누구 명령받고 왔냐?」

「형님, 혹시 함배 아닙니까?」

「이 새끼 딴소리는。」

「아무래도 함배같아서 말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냐? 나 본적 있어?」

「첨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녀석이 나를 알아본다는 게 신기해 보였다。그런 소굴에서 빠져 나온지 벌써 여러 해째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곰배 형님이 그러던데요。」

「곰배가?」

전혀 뜻밖이었다。곰배라면 의리의 사나이였다。그 바닥에서 의리 지키다가 오른손목이 잘려 나간 전문가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이번에 곰배가 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섰죠。」

녀석은 갑자기 활기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결례 밑에 곰배가 들어갔단 말야!」

「이번 일만 해주기로 했어요。」

「이번 일만? 왜?」

「김갑산한테 갚을 일이 있대요。」

「곰배가 말야?」

「그래요。손 씻은 곰배 형님이 오죽하면 나섰겠어요。」

「곰배가 나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첨부터 알았어요。우리들 보구도 함배가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라고 일렀어요。정 안되면 곰배형님이 함배하고 담판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갚을 일이 있다더냐?」

「곰배 형님 공장 차렸던 거 몰라요?」

「안다。」

「그거 말아먹은 게 김갑산예요。공장 확장하다 사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주식 49%를 가지고 뛰어 들어와서 야금야금 파먹고 곰배 형님 알거지로 내쫓은 게 김갑산 그 개새끼라구요。곰배 형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곰배 형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곰배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누르기 어려웠다。곰배가 명동바닥에 뛰어든 것은 열두 살이란 어린 나이 때였다。물론 처음에는 구두닦이 소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차츰 선배들 눈에 뜨이는 재질을 보였다。

곰배는 파격적으로 열 다섯 살에 정식단원으로 승격하여 아낌없이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했다。

스물 여덟 살짜리 청년에게 명동의 일류 신사들이 형님이란 칭호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은 그의 족보와 서열 때문이었다。

손목이 잘린 뒤에 곰배는 무슨 사업인가에 손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거덜 내고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나이로 따져서 내가 형편없는 후배인것만은 속일 수 없는 일이었다。더구나 족보로 따지자면 새까맣고 서열로 따져서야 겨우 맞먹을 정도였다。

곰배하고 한판 붙었을 때 우리 똘마 선배들이 말려서야 겨우 악수를 할 정도로 실력이 엇비슷했었다。그뒤로 내가 닦은 실력으로 그런 친구들 여남은까지도 해치울 수 있었지만 그때는 곰배 실력이 제일급에 속했었다。

어쨌든 그때의 실력대결 이후에 우리는 서열을 나란히 갖게 되었다。

「어떻게 할래요。곰배 형님한테 가실래요?」

녀석이 속력을 늦추고 물었다。나는 녀석의 뒤통수에 대고 물었다。

「황변호사 어디 있지?」

「결례 형님네 애들이 데리고 있을 거예요。그쪽은 우리 일 아녜요。」

「그럼 곰배는?」

「집에 있어요。」

「그럼 우선 결례 애들 있는데부터 가자。」

「곰배 형님부터 만나는 게 좋을걸요。」

녀석은 힘있게 말했다。

「너, 곰배 밥 먹냐?」

「그래요。」

「배는 곯지 않냐?」

「가보면 알 거 아녜요。」

녀석은 퉁명스럽게 나왔다。

「잔소리 말고 결례네 애들 있는 데로 가라。」

녀석은 뒤를 흘끔 쳐다보고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오토메틱의 성능좋은 랜드 크루저는 질주하기 시작했다。더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인물인가를 곰배한테 들었기 때문인것 같았다。

보고싶은 얼굴이었다。그만큼 실력을 갖추고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 손목이 잘렸고 곧게 살기 위해 버둥거리다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곰배의 모습이 떠올랐다。

참아야 한다。힘겹더라도 참아내야 한다。이 순간에 애정과 곰배의 딱한 사정만 생각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

「빨리 달려。」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곰배 형님 불쌍하지도 않아요。함배는 곰배 형님 잘 알잖아요。」

녀석이 악받친 듯이 한마디했다。

「모가지를 비틀어놓기 전에 아가리 닥쳐。」

나는 주먹을 들어 녀석의 턱끝에 대었다。녀석은 시속계를 쳐다보며 입을 앙다물었다。

서열 때문에 명동신사들도 형님이란 칭호를 썼지
사내로 태어나 한건 올리고 죽는건 자랑스런일야

하나님。이럴 수 있읍니까? 곰배처럼 성실하게 살려는 젊은이에게 이럴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도대체 더러운 부자편에 서서 뭐를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지금 곰배 편만 들면 김갑산 영감인지 늙은이인지는 뭬집니다。곰배는 그럴 만한 실력자라구요。그런데도 나는 지금 곰배편을 포기하고 황변호사를 살리러, 그 더러운 부자 김갑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읍니다。

하나님。사람은 장난감이 아니잖아요。어린애들도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지는 않아요。

별장 뒤의 숲길에서 내린 나는 녀석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곰배한테 가서 이대로 전해。내가 일이 끝나는대로 갈테니까 딴짓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해。움직이면 그냥 두지 않는다고。자 이게 내 진심이라고 전해。」

나는 칼을 꺼내 내 왼쪽 팔뚝을 푹 찔렀다。피가 튀었다。옛날에 우리들이 하던 의리의 예식이었다。결코 내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증표였다。

녀석이 고개를 숙인채 돌아섰다。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말했다。

「곰배 형님이 알아들을 겁니다。몸 조심하세요。개들 다섯명인데 모두 총알 가졌어요。」

「알았어 임마。내 이름이 장총찬야。」

녀석이 콧김도 세게 웃고 차를 향해 뛰어갔다。

나는 숲길로 해서 별장 뒤꼍으로 다가갔다。불빛이 새어나오는 창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다。

기습하기로 마음 먹었다。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는 순간에 해치우지 못하면 총알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숲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표창을 꺼내들고 몸을 숨겼다。살금살금 걸어오는 사내는 조금 전에 돌려보낸 곰배의 부하 녀석이었다。

「너, 왜 왔어?」

「함배 형님이 걱정이 돼서요。」

「돌아가。어서!」

「내 걱정 말고 어서!」

「함배 형님 혼자는 안돼요。」

「재들이 나는 아직까지 믿어요。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안심시킨 뒤에 신호를 하면 들어와요。」

나는 강인한 인상을 녀석에게서 발견했다。그리고 그것이 곰배가 후배들을 키운 의리라는 걸 깨달았다。

「좋다。먼저 들어가라。」

「이게 신호에요。」

녀석은 딱성냥을 내보였다。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이 들어간 뒤에 나는 뒷문께 바짝 붙어서 녀석이 신호를 보내기만 기다렸다。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을 잡을 수 없었다。

만약에 녀석이 나를 속였다면 나는 이 순간에 그들의 총알을 먹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녀석이 그쪽 애들에게 다른 작전을 세우게 한다면 벌써 나는 포위된 상태인지도 모른다。

초조했다。후회도 생겼다。차라리 뛰어 들어가서 후다닥 해치울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곰배의 부하라면… 적어도 곰배에게서 훈련을 받은 녀석이라면… 그리고 내가 팔뚝을 찍을 때 내 의리를 짐작한 녀석이라면…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한 순간 딱성냥이 켜졌다。

나는 문을 걷어차며 뛰어들었다。둘러섰던 사내들 손에는 술잔이 들려져 있었다。나는 날렵하게 벽쪽에 기대어 표창을 날렸다。

쉭쉭쉭쉭쉭!

무섭게 빠른 속도였다。다섯명의 사내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녀석이 재빠르게 권총을 내쪽으로 걷어찼다。

「권총 다 챙겨라。」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황변호사가 절뚝거리며 뛰어 나왔다。녀석이 권총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씨익 웃었다。

「함배 형님땜에 결례한테 나는 언젠가 죽게 되겠죠。」

녀석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내로 태어나서 한건 올리고 죽는건 자랑스런 거다。걱정마。내가 죽기 전엔 너 먼저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니까。」

녀석이 사내들을 묶었다。나는 황변호사 손에 묶인 철사를 풀어주었다。황변호사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유서가 바뀌었어요。어쩔수 없었어요。녹음테이프는 누군가 가져갔고요。」

「걱정 마세요。이젠 안심해도 돼요。너는 빨리 가서 차 끌고와。」

녀석이 차를 끌고 왔다。나는 다섯 사내들을 뒷자리에 몰아넣고 황변호사 옆에 앉았다。

「김회장 집으로 가자。」

녀석이 액셀러레이터를 힘껏밟았다。숲 길로 헤드라이트의 불기둥이 자빠지며 달렸다。황변호사가 비스듬히 기대며 눈을 감았다。

「함배 형님, 우리 곰배 형님 복수 꼭 해줘야 합니다。」

녀석이 콧노래 처럼 말했다。

「달리기나 해。」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황변호사가 뭐라고 지껄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오직 곰배와 김갑산 영감과 넘치 형 생각 뿐이었다。

중심가로 들어선 차가 곡예하듯 달리고 있었다。녀석의 운전솜씨가 보통은 아닌것 같았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美國서 暗躍하는 KGB의 正体 ②

超특급 秘密까지 간단히 빼내간다

◇KGB에 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된 보이스,로갈스키, 헬미히 (왼쪽부터)。

在美蘇聯人중 35%기스파이
워싱턴·뉴욕등이 主活動무대

그러면 KGB가 미국에 파견하는 요원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인가.

KGB의 워싱턴책임자로 밝혀진 드미트리·야쿠시킨의 경우 러시아 10월혁명당시 어떤 장군의 후손인데 그는 뉴욕을 수차례 여행해 미국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며 한때 제3局(영국담당)의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다. 현재 뉴욕의 KGB최고책임자로 있는 블라디미르·카자코프는 모스크바에 있을 당시 제1국의 우두머리로서 對美國스파이전을 총괄하던 자이기도 하다.

미국에 파견되는 KGB요원들의 이런 화려한 경력이 오히려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역효과를 부르기도 한다. 그들의 족적을 추적해보면 비통상적인 승진이나 전출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한 부서나 조직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경우 거의 틀림없이 그 사람이 정보요원으로서 비밀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1970년 미국정보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어떤스파이들은 지나치게 도피하는데 급급해 오히려 눈에 띄기도 한다. 얼마전 스파이혐의로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선 폴란드인 사업가 마리안·자카르스키의 경우가 그 대표적 케이스인데 그는 지난 77년 미국에 잠입하자마자 정보요원의 눈에 띄어 요감시 인물로 찍혔다. 그는 미행하는 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위해 거리에서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마구 달리는가하면 차선을 지그재그으로 바꾸기도하고 갑자기 온 길을 되돌아가기도 해 결국 정보기관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결과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가 되자 감시행위가 하나의 게임처럼 되었다. 하루는 자카르스키가 자기를 감시하는 FBI요원에게 자동연필을 건네주면서 『당신들은 메모를 많이 해야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거야』라고 농담을 걸기까지 했다.

워싱턴에있는·소련대사관을 통해 우리는 KGB가 미국내에서 활약하기위해 어떤 조직을 갖고있나를 알게 된다.

KGB의 동생뻘인 GRU(군정보기관) 요원들이 해당지역의 군사기지주변 술집을 드나들며 정보를 빼내는데 주력하는 반면 KGB의 일반사업부서는 인원보충을 담당한다. 그런가하면 KGB 역시 정보수집임무를 띠고있는데 이들은 주로 정부기관 고용인들과 자연스런 교제를 가지며 가볍게 술을 마시면서 정치적인 정보를 빼낸다.

최근 미국정보기관에서는 讀話(입술의 움직임으로 대화내용을 판독하는것) 훈련을 받은 소련인들이 각도시에서 활약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가하면 과학·기술분야는 소련무역협회인 암토르그의 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의회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읍니다. 비밀문서화되지않은 각종 서류를 읽고 미국 산업과 그 연구개발에관한 보고서를 탐독합니다』라고 소련에서 전향해온 블라디미르·사하로프는 고발한다.

대사관에 暗殺組織까지두고
안테나통해 軍事機密등빼내

■專門家와 裝備

대사관에 있는 防諜부서는 CIA나 FBI, 심지어 지방경찰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측의 정보 요원강화 작업을 방해하도록 지시받고 있으나 그보다는 미국정보기관이 그들조직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있다. 지원부서라고 불리는 불법 조직은 소련여행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미국시민들의 패스포트를 비롯, 출생확인서까지 모두 수집, 사본을 뜨는 일을 맡는다. 이런 각종 증명서는 장차 스파이활동과 양민공갈등에 쓰일 위조문서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끝으로 미국의 소련대사관에 있는 KGB조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상주하고있다. 예를 들어 도청 전문가, 기밀식자전문가, 비밀사진촬영전문가등 여러가지다. 이외에 기밀문서를 해독하는 암호전담 사무원이 있는가하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운전기사도 있다. 이 운전사는 대사관용 리무진 승용차에 깜박이등을 켜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긴급히 KGB요원을 도피시켜야 할 때 이용된다.

워싱턴의 소련대사관에는 이외에 특수부서로「Wet Affairs(더러운 일)」담당부서가 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유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것은 암살조직으로 악명높은 소련의 第13局소속이다. 가장 최근 미국에서 이들의 족적이 발견된것은 70년대 초반인데, 이들은 주로 KGB배반자들을 처치하는 일을 맡는다.

Wet Affairs 전문가들은 또한 일단유사시에 국가기간산업인 유류저장시설과 방송·통신시설, 급수시스팀등을 일격에 파괴하기위한 준비작업도 서두르고있다.

KGB는 미국고위관리들과 「접촉」을 갖는데에도 능란하다. 1968년 리처드·닉슨이 대통령직에 오른 직후 대사관 고문으로 가장하고 미국에 잠입해 있던 KGB요원 보리스·세도프는 장차 국가안보회의의 위원장이 될 독일출신 외교전문가와 접촉을 갖고 그를 통해 헨리·키신저와도 관계를 맺었다. 헨리·키신저는 세도프를 통해 닉슨의 숙원인 미·소 협상의사를 모스크바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KGB의 손길은 카터행정부시대에는 더욱 확대되어 국가안보회의 회원들에게까지 미쳤다.

한편. 소련스파이들이 美의회 의원들에게 접근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단지, 의원 보좌관들까지 접근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1971년 세도프는 위스콘신 출신 하원의원인 오콘스키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정치학도 캐퍼스에게 그가 쓴 기사에 대해 30달러내지 40달러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오콘스키의원은 당시 국방분과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세도프는 이것을 노렸던 것이다. 노보스티통신사의 특파원으로 위장한 세도프가 캐퍼스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캐퍼스는 이미 FBI에 자수, 그들의 조종을 받고있었기 때문에 세도프는 그의 목적을 이룰수 없었다.

KGB가 포섭하려는 대상은 과거와 무척 달라졌다. 1930년대나 40·50년대까지는 자발적으로 소비에트연방을 위해 일하겠다는 이상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KGB의 표적은 「용병파 절름발이」(돈에 미친 사람이거나 약점이 있는 자)로 바뀌었다고 해군정보기관의 한 당국자는 비꼰다.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군인들이나 기술자들에게 돈은 하나의 미끼가 되지만 또한 올가미가 되기도 한다. 일단 돈을 받으면 이것이 공갈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돈을 받을 때 그들은 현장사진을 찍었어요. 그후로 그 사진을 내게대한 무기로 사용했죠.』 과거 포섭대상이었던 캐퍼스의 말이다. 前CIA요원이 펴낸 한 책자에는 『미국인들은 돈만이 개인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미인계와 情報

KGB공작원들은 정부나 사업체의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이나 상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눈독을 들인다. 『그들이 환멸을 느끼는 시기가 일시적이어도 상관이 없다. KGB요원들은 일시적이고 사소한 현상까지도 놓치지않고 기록해두기 때문이다.』 前FBI요원의 말이다.

생각한다』며 『따라서 그 돈이 획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쓰고있다. FBI부국장인 오말리도 이에 동의한다. 『경제적인 불황이 심화될수록 정보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포섭대상은 弱點있는 사람
섹스 미끼로 魔手뻗치기도

미국에 대해 비교적 충성스런 사람들도 이들의 마수에 걸려들 가능성은 많다. 이경우 미끼는 섹스다. 소련이 방대한 전자도청장치를 이용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국가요직에있는 고위관료와 그들의 情婦가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것이다. KGB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뽑아오는 국방성 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해 이들은 정부요인들의 전화·송수신내용을 완벽하게 컴퓨터에 기록하고있다. KGB는 전화선에 직접 연결해 도청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전자안테나를 이용, 단파방송을 수신하듯이 흔적없이 군관계나 정부쪽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것이다.

한편 소련공작원들은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게 소련계 망명자들을 추적한다. 前CIA요원이었던 로지케의 말을 빌면 『그들은 일단 소련국민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뉴스위크誌가 추적한바에 따르면 지난 봄 폴란드정보기관에서 암호해독전문가로 있다가 UN으로 망명한 알렉산더·잔코프스키의 경우, 망명해온뒤에도 폴란드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폴란드계 미국인들을 도와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국 폴란드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든 혹은 고국에 두고온 가족들에대한 보복이 두려워서든간에 이들 망명자 자체에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FBI가 확인한바에도 KGB가 시카고의 폴란드인사회에 침투하려했던 흔적이 보인다.

KGB의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망명인사회에 침투하려는 KGB의 노력 역시 필사적인데가 있다.

1971년 배로 미국에 망명한 소련인 어부 이반·로갈스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뉴저지주 제손市 근처의 러시아인 마을에 정착했다. 1975년 그는 다른 망명인 부부와 함께 센프란시스코에 사는 그의 친구를·네크라소프가 베푼 파티에 초대했다. 네크라소프는 일정한 소양교육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었다. 그들이 러시아에 대한 향수를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로갈스키가 네크라소프에게 『우리의 모국을 위해 무언가 해야하지 않을까』하고 말을 꺼냈다. 네크라소프는 즉시 FBI에 보고했고 로갈스키에대한 14개월의 내사가 시작되었다.

最高책임자는 안드로포프
要員의 半數는 國內査察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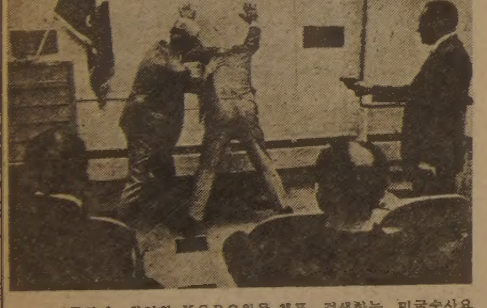
로갈스키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네크라소프에게 뉴욕에 있는 KGB외교관에대해 얘기했고 스파이 전술을 가르쳐주며 정신적으로도 준비하라고 충고했다. 로갈스키는 만약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소련해군이 구해 주러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안되면 정신 이상으로 가장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로갈스키가 FBI에 검거되었을 때 그는 진짜 정신장애가 있는 걸로 밝혀졌다.

때로 소련의 첩보전술은 우스울 정도로 노골적일 때가 있다. 워싱턴의 소련대사관 스파이인 벨노프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美공군상사인 페터슨과 친해져 다른 외국인 무관들과합께 공군이 후원하는 군사기지관광을 나서게 됐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A-7제트기에 타자마자 조종실로 건너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곳 저곳을 촬영하기 시작해 결국 끌려나갔고 또다른 기지에 가서는 F-4제트기 날개밑에 달려있는 마베릭미사일의 탄두부분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려다 쫓겨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엔 소련신문인 「리테라투르나야·가제타」의 뉴욕주재 특파원이 국무성의 승인을 얻어 멤버를 여행할 때 출입금지지역을 보겠다고 무턱대고 우겨 여행허가를 취다. 소련정보기관에 기밀을 팔아왔다고해서 기소되었다가 재판절차상의 문제로 풀려난 美공군 특무상사 레이먼드·드젠플린의 경우 그는 이들로부터 여러 차례 가족사진을 들이대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휴즈비행장의 기술자 윌리엄·홀든·벨은 폴란드정보원 자카르스키에게 거액으로 매수당했는데 그도 역시 전처와 전처소생의 아들을 미끼로 협박당했다고 한다. 폴이라는 스파이가 그에게 접근해 『당신 참 멋있는 가족을 가졌군.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들을 돌보겠어』라며 빈정거렸다는것.〈계속〉

◇KGB에 맞서 美國을 지키고있는 미국의 CIA요원。



◇사무실에 침입한 KGB요원을 체포, 검색하는 미국수사요원들。

海外걸작漫畫

『블리치크군,마침내 제길을 찾았군/』
"Blitzick, you got class!"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엄마,전 어린애취급하는데 진저리가 나요"
"저도 어른 대접을 받고 싶단 말예요/"
"좋아, 그럼 네가 식구들 저녁 준비를 끝내보렴"
"엄마, 잠깐만/ 제가 어른대접을 받는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봐요"

한국일보
TEL :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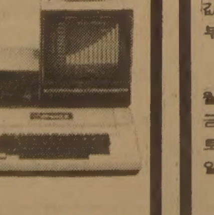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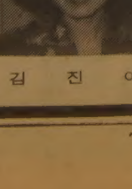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11 : 00AM～10 : 30PM
금요일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 에서 Bayview 사이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 (416) 222－9480

MARY KAY

여성의 아름다움은 현명한 화장품 선택에서! 메리케이는 가장 품위있고 저렴하며 어떤 타입의 피부에도 소망을 이루어 드립니다.
X-마스 선물용 스페셜 패캐지가 다양하게 나왔읍니다.
(Free wrapping＋delivery)
겨울철 피부미용 상담환영
파타임 원하시는 분은
270－4175로 연락요망
Sales Director
김 진 아



김 진 아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새해 輸出목표 247億弗

國際景氣침체 감안 縮小조정

당초목표서 6億달러 줄여

成長率 1%정도 낮아질듯

信用狀 到來줄고 우리産業競爭力도 떨어져

정부는 내년도수출목표를 당초의 2백53억달러보다 6억달러가 적은 2백47억달러로 축소 조정했다. 이는 금년도 예상실적2백10억달러보다 17.6%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수출목표를 축소조정한것은 내년도 국제경기전망이 유동적일뿐아니라 국내수출산업의 경쟁력이떨어져 앞으로의 수출전망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목표가 축소조정됨에따라 내년도 성장률도 다소낮아질것으로 전망된다. 9일 상공부에의하면 내년도 수출목표는 당초 2백53억달러로 책정되었으나 연말에 접어들면서 수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출실적이 눈에띄게떨어지고있을뿐아니라 내년에도 같은 추세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내년도 수출을 2백35~2백4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수출목표가 너무낮아지면 내년도 성장률이 낮아지기때문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강력한요청에 따라 수출목표를 일단2백47억달러로 책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공부는 우리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하게떨어지고 있기때문에 환율인상·금리인하및 수출금융의 융자단가인상등 새로운 지원시책이 따르지않으면 2백45억달러이상의 수출은 매우어렵다고 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최소한 수출금융의 융자비율만이라도 인상해줄것을 요청하고있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정책금융이 많아지면 일반금융의 비율이 낮아지기때문에 융자비율의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공부는 또 수출목표를특정수준에 못박아두면 이목표선을 달성키위해 무리한 수출을 하게된다고 지적, 성장률이나 물가안정선처럼 일정한 幅을 두어 내년도 수출목표도 2백45~2백50억달러로 책정해야한다는 입장을제시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주도해온 수출증가율이 당초의20%(2백53억달러의 경우)에서 17.6%로 낮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韓銀은 내년도 경기전망에서 82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7~8%에서 6~7%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5차5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출을 매년 20.3%씩 늘리도록 짜여져있다. 그러나 내년 경우는 초년도부터 수출이 차질을 빚어 5차5개년계획도 약간의 차질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9월부터 수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출주문(신용장도착액)이 떨어지고있고 최근에는 수출실적에 반영되어 11월중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보다 4.6%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런데 지난9월 신용장도착액이 전년동기보다 14.9%가 떨어진 이래 10월에는 5.9% 11월에는 9.4%가 각각 줄어들어 내년초의 수출전망이 매우 어둡다.

정부와 民韓黨이낸 18개 金融관계법안을 심의중인 9일 국회財務委의 金融관계法심사 小委。

全대통령致辭
「새마을」經濟難타개 디딤돌로
"국민組織으로 昇華를"

【大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9일 새마을운동은▲국가위기 극복의 국민조직으로 육성돼야 하며 ▲국민정신교육운동으로 이어져야 하고▲國力배양의 [illegible] 타개의 디딤돌과▲國力의 극대화에 대비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illegible] 새마을지도자들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핵심적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大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마을운동은 [illegible] 되는것이 결코 아니며, 작은일로 부터 주민에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천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새마을운동은 의미를갖게되고 성공을 약속받을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그동안의 새마을운동은 말로만하는 운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고▲內實있는 추진보다 實績자랑위주로 이운동을 대하는자세도 없지않았으며▲농촌의경우 획일적인 下向지도로 주민이 受動的으로만 참여하는 경향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도시새마을의 경우 도시민의 다양한욕구를 소화할수있는 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지않아 특히 고등교육을받은 계층에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새마을운동의 참다운발전을 더디게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슬기와 노력으로 이를 헤쳐나가지않으면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밖에도 공장새마을의경우 기업측의 책임감과 근로자의 天職의식이定着되지못해 이운동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듯한 인상이 적지않으며 도시와 농촌을막론하고 새마을지도자의 士氣진작과 後繼世代양성이 또한 큰 문제점으로 등장되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말해 잘살기운동』이라고 전제,『그러나 사람이 잘산다는 것은 物質생활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건전한 정신생활과 공동생활의 安寧이 물질생활의 개선과 함께있을때 비로소 잘산다는 목표는 진정으로 달성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따라서 잘못된 慣習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타파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우리는 隣保協同하고 人情이 넘치는 공동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며 또한직업윤리를 확립하고 和氣찬 勞使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大邱서 새마을指導者대회

【大邱=[illegible]기자】81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illegible] 50만의 새마을지도자등 모두 7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상오10시 大邱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됐다.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이날대회에서▲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생존을위해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고▲문화국민으로서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정신혁명운동에 앞장서며▲마을과 공장과 직장에서 자기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 80년대 제2의도약을 이룩한다는등 3개항을 결의했다.

경과보고에서 [illegible]『새마을운동은 이제 세계속의 새마을운동으로 성장했으며 그동안 95개국 1만5천여명의 외국인이 새마을을 연구시찰하고 돌아갔다』고 말하고『앞으로 새마을운동은 준법정신과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통한 국민정신 [illegible]운동으로, 그리고 새마을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처음열린 이날 대회에서 새마을유공자 4백9명과9개단체, 증산유공자 1백77명이 새마을훈·포장과 대통령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全대통령은 새마을사업실적이 우수한 충남燕岐郡南面方比里등 전국 4천개마을에 특별지원금 3백만원씩을 수여했다.

올림픽高速道공사 차질없게
全대통령現地시찰, 새마을于京마을도

【大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9일 하오 모범새마을인 慶北達城郡玉浦面于京마을과 88올림픽고속도로 제2工區를 각각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뒤 고속도로 제2공구지역인 慶南陝川郡冶爐面에 들러 마을현황을 살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서 성공사례마을로발표된 于京마을에 도착 于京새마을에관해서 崔亨洙達城군수로부터 마을현황을 보고받고『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되어 소득의 균등한분배를 이룩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새마을운동참여를 유도하고 협동정신을기르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陝川郡冶爐面의 올림픽고속도로 제2工區 현장에들러 朴泰櫓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건설현황을 설명받고『작업인부들을 독려해 공사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공사 현장 시찰을 끝낸뒤 현장옆에 있는 冶爐面을 예고없이 방문, 마을유지들과 올해의 秋穀作況등에 관해 환담하면서『정부도 내년도물가10%선 억제를 위해 노력할것인만큼 농민들도 물가안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고『금년도 秋穀수매가 인상폭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물가를 안정시켜 실질소득을올리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慶北도청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훈장을받은 수상자등 새마을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常委활동 週末에 끝내
政治활동解禁案 16일表決
계류중인95건 法案등 40件만처리

국회는 이번會期를 10일남겨놓은 9일 현재 각常委에 계류중인 95건의 각종 法案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改革意志가 담긴 40여件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초 임시국회에 넘길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法案은 議員立法 30건과 정부제출65건 등 모두 95건이며 建議案은 야간통행금지해제에 관한 것등 3건이고 同意案은 15건으로 계류중인 案件은 모두 1백13건에 이르고있다.

국회는 이번 週末까지 財務委를 제외한 常委활동을 모두 마치고 14일부터 本會議를 속개, 17일까지 각常委에서 처리한 案件을 통과시킨다.

民正黨은 계류法案중 公職者倫理法案, 정부조직법개정안과 [illegible]法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道路交通法개정안, 地方稅法개정안, 의료보험법개정안, [illegible]방지법 개정안등은 이번會期안에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民正黨은 民韓黨이 [illegible] 16일 [illegible]에 상정, [illegible] 民權黨이 [illegible] 하고 있는 [illegible] 민주대열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것이 시대적요청이라고 주장하고있어 막바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illegible] 기시키는 한편 국민당이 제출한 舊正公休日 지정건의안은 內務委에서 폐기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정치활동 被規制者 해제건의안에 대해 民正黨은 아직 解除의 조건도 마련되지않았고 정치발전에 하등도움이되지 않으며 대통령의통치권에속하는것이라는이유를들어 철회를 요구하고있다.

이에반해 民韓黨측은 제5공화국이 지향하고있는 정의사회구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위해 전국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있고 현시점은 정치풍토가 쇄신되고 도의정치의 구현분위기가 성숙됐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선거참여가 금지되어 사슬에 [illegible]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대열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것이 시대적요청이라고 주장하고있어 막바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illegible]

舊正公休 異見여전
內務委서 폐기방침

국회 內務委의 夜間通行 제한해제에 관한 건의안심사 7人小委는 9일하오 모임을갖고 通行해제문제는 조속한시일안에 건의키로 합의하는한편 舊正공휴일제정문제에관해선합의점을찾지못해10일상오再論키로했다.

小委는 이날 通行해제문제[illegible] 앞으로 通[illegible] 해제할경우 야기될수있는 安保및 치안상의 문제점은 行政부가 빠른 시일안에, 완벽한 보완책을 갖춰주도록 촉구키로했다.

民正黨은 또 民韓黨이 제출한 地方自治法 개정안,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 行刑法개정안, 言論기본법개정안등은 폐기시키고 國會法개정안, 銀行法개정안등은 내년으로 넘길계획이다.

란이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中部前線 聖誕트리
높이 25m…점등식

북한동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북녘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성탄트리점등식이 8일밤 남방한계선 최북단인 육군제○○부대에서 부대장을 비롯한 많은 장병과 서울永樂교회 성가대원50명등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북녘땅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중부전선부대 필승교회정상에는 높이 25m짜리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됐고 트리는 5천만동포를 상징하는 5천개의 5색등으로 장식됐다.

『지극히 높은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라는 교독문 낭독을 시작으로 永樂교회성가대원들의 사랑과 평화의 찬송가가 북녘땅으로 울려퍼지면서 대형크리스마스트리에 매달린 5천개의 5색등에 일제히 불이밝혀져 점등식은 절정을 이뤘다.

◇북한동포들에게 통일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위한 대형 크리스머스트리가 8일밤 중부전선 필승교회 정상에 세워져 5천개의 5색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救世軍 자선남비
내일부터 募金
서울등 44개지역서

구세군 대한본영은 오는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 大邱, 大田, 仁川, 光州, 全州등 전국 44개지역에서 81년도 자선남비모금을 실시한다.

구세군은 이기간 동안 7천5백만원을모금, 이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와 사회복지 시설 보조에 이용할 방침이다.

對韓 經協 政治妥結 촉구
訪韓마친 日民社委長 귀국會見

【東京9日=聯合】한국을 방문하고 7일 귀국한 사사끼·료오사꾸(佐佐木良作) 일본民社黨위원장은 8일하오 기자회견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경협문제를 타개하기위해서는 관료위주의 절충보다는정치회담이 필요하며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의 영도력과 정치적판단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사끼위원장은 자신이 최근의 방한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한일양국간의 근본적차이가 일본이 외무성관리주도하에 대한경협액수를 해마다결정해 나가려는데비해 한국측은 이를 일괄 타결지으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양국이솔직한 정치회담을통해 우호관계를 확립하는것이 선결이라고 말했다.

사사끼위원장은 한국방문에서 南悳祐총리등과 만나본결과 한국이 군사적협력보다 경제개발을 목적으로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고 말했다.

5개國際行事 서울서開催
野球協 내년事業

대한야구협회는 82년 한햇동안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9월·서울)등 5개의 국제행사를 서울서 개최하고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7월·美國)등 해외에서 열리는 9개 국제행사에 참가키로 했다.

야구협회가 8일 확정한82년도 초청및 파견계획은 다음과 같다.

◇82년도 국제행사 ▲초청=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9월·서울)국제야구연맹집행위원회(9월·서울)국제야구연맹총회(9월·서울)日本관동사회인야구팀초청대회(4월·서울및지방)日本긴끼대학야구팀초청대회(7월·서울및지방)

▲파견=서태평양연안대회(3월·괌)리틀극동지구예선대회(8월·日本)韓日고교야구대회(7월·日本)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7월·美國)韓日친선실업야구대회(10월·日本)韓國대표팀전지훈련(2월·自由中國)세계청소년야구대회(6월·美國)국제심판강습회(3월·日本)연구조사원파견(4월·日本)

한국일보 詩壇

겨울에는 믿고살아라

金 京 洙

서울에는 하이얀 눈길 따라 먼 고향으로 가라。

펑펑 흰눈이 쏟아지는 겨울외솔출한바다와 높은 뫼의 강산이어도 좋아라。

겨울에는 아낌없이 사랑하여라。
타오르는 불길、은밀히 피는 꽃너울과 고독의 향기를。

겨울에는 믿고 살아라。
받는자 보다 주는이 늘이 있나니、
흰눈과 같은 마음에 복이 있노니。

겨울에는 꾸밈없이 웃어라。
언제나 멍에로 얹히는 눈물의 가시관과、주어진 삶의 해와 달과 별。

겨울에는 먼 산을 바라보아라。돈과 명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저 넓디넓은 광야를 휘몸이 되어 뛰어라。

[illegible] 고르키의 3칸짜리 조그만 아파트방에서 라디오도 못듣게하는가운데 24시간 감시를받으면서 쓸쓸하게 부인과 단둘이 환갑을 맞았었다。

작년8월엔 감금생활 속에서 사하로프가 부인을 통해 방세계에 보내는 편지를 공개、또한번 세상을 놀라게했다。

사하로프는 自由世界가 지금 安逸한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아프간·이란사태에 서방측은 단결력을 보였어야한다고 경고、서방측 약점은 석유에 너무 의존하는데 있으며 앞으로는 核에너지에 主力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련아카데미회원이고 영웅칭호에 레닌상까지 받았지만 自由와 理性에 눈뜬 사하로프는 一身의 영예를 버리고 反體制人士로 낙인찍히면서도 신념을 굽히지않았다。사하로프는75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오슬로行출국신청을 냈었다。그때 安保上이유로 여권도못받았지만 본인 또한 조국을 영영 등질생각은 없었던것 같다。무시무시한 공산독재하에서도 자유와 인권을 소리높이외치는 이 소신있는 核物理學者의 자유투쟁은 전세계의햇불이라고 할수있다。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 바랄뿐이다。

地平線

지난11월 22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련水爆의 아버지 사하로프박사가 위독하다。核物理學者 사하로프는 75년노벨平和賞 수상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는 人權운동가이기도하다。소련체제비판으로 유명한 인물이다。이번의 단식은 미국에 가있는 의붓아들과 결혼해서며느리가될 알렉시에바의 출국여권발급을 소련당국이 거부한데 대한 항의로 부인과함께 투쟁하고 있는것이다。▼사하로프는 [illegible]기는하나 個人의自由의 존엄을 호소해온 [illegible] 知識人으로 세계의존경을 받아왔다。1966년에 [illegible] 봄에서 소련이 人權[illegible] 공적했다。73년 [illegible] 로프선언을 발표 [illegible] 목을끌었다。[illegible] 부세계에서 [illegible] 물론 국내 [illegible] 마저없는 [illegible] 유가 빼앗겨 [illegible] 회·라고 [illegible] 아울러「공산 [illegible] 끝장내서 [illegible] 한 선거가 요하다」고주 [illegible] 장하면서 [illegible] 대의 [illegible] 회와 [illegible] 리고 [illegible] 첫이다。▼소련은 [illegible] 眉를쓴 反體制知識人이고 노벨文學賞 수상자인 솔제니친을74년에 국외로 추방했으나 사하로프만은 세계의 여론이 무서웠던지 그를 국외로 추방하는대신 모스크바에서 4백2km 떨어진 고르키에 流配시켰는데 사하로프는 그후에도 체제비판을 계속해왔다。지난 5월21일 사하로프는 복가김 기숙의 고을

社會漫評

雲上都市 계획?!…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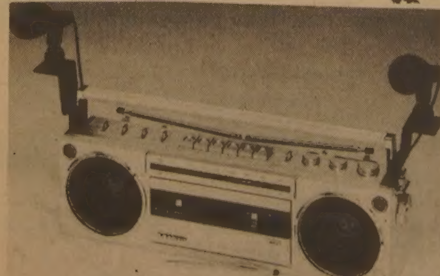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 동 주

크리스마스 특별세일
SANYO
VIDEO CASSETTE RECORDERS
PORTABLE AM/FM STEREO



M7750 Mini Stereo Cassette
REG. $ 379
SPEC. $ 299

비데오
SPEC.
$ 799

M9921 AM/FM Stereo Cassette
단파 SPEC. $ 199

킴스카메라·트로피(감사패)
619 BLOOR ST.W. TORONTO
전화 : 534—1085 대표 : 김춘탁

美,對리비아 制裁모색

暗殺團관련 연이틀째 國家安保회의

석유禁輸·여행制限등

白堊舘·국내외要人 보안조치強化

◇사하로프博士의 의붓아들 蘇聯의 물리학자 안드레이·사하로프박사의 의붓아들 알렉세이·세묘노프(左에서 두번째)가 8日 美의회에서 에드워드·케네디上院의원㊥등 매사추세츠州출신 외회대표단과 만나고 있다。【워싱턴 8日AP電送=聯合】

【워싱턴8日UPI·AP=聯合】레이건미 대통령은 리비아가 미국에 10人암살단을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8일 연 이틀째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 리비아에 대한 경제·정치제재조치를 논의하고 국내의 요인들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이틀사이 두번째로 소집된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선 리비아로부터의 석유수입금지 및 미국인들의 리비아여행금지등의 제재조치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는 현재 초비상 보안조치가 취해지고있는데 관리들은 쿠바미사일위기와 이란인질사태를 제외하고 NSC가 연 이틀째 소집되기는 이번이 처음일것이라고 말했다。

래리·스피크스백악관부대변인은 미행정부가 3개월전부터 가다피정권을 고립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해왔다고 밝히고 리비아암살단이 레이건 대통령과 기타 고위관리들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미국에 잠입한 증거는 포착했으나 아직 밝힐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연방수사국(FBI)은 이미 1주전에 미국에 잠입한것으로 알려진 이들 암살단을 색출하기위해 전국적인 수사를 계속하고있다。

한편 이같은 리비아암살단 미국내잠입보도가 있은후 미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공식행사참석을 줄이고 조지·부시부통령, 각료정계및 재계지도자들에 대한 경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중동을 순방중인 필립·하비브중동특사, 브뤼셀의 나토 정기각료회의에 참석중인 와인버거국방장관등 해외에 나가있는 미정부요인들에대한 보안조치도 강화했다。

리비아暗殺團 潛入 議會에 對應策설명

【워싱턴9日UPI=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美지도자살해를 목적으로 파견됐다는 리비아암살단의 美潛入說과 관련, 가능한 對應策을 24~48시간 이내에 의회지도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사드르失踪 조사요구

리비아機 납치범들 테헤란에 着陸

【니코시아7日AP聯合=聯合】38명의인질과함께 테헤란공항에 도착한 리비아항공기 납치범들은 7일 5가지요구조건을 제시했다고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 외무성 대변인 알라비·타바타베이의 말을인용, 인질들은 첫번째 조건으로 음식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4개조건이 이행될때까지 계속 인질을 잡고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이밖에 나머지4개 요구조건은 다음과같다。

▲그들의 지도자 무사·사드르의 납치사건에 관해 호메이니옹에게 다시한번 설명하고 싶다 ▲이란당국이 납치범들을 대신해 리비아와 협상을 벌여달라 ▲사드르납치문제를 조사하기위한 대표단을 구성하라 ▲이란에 메시지를 발표하게 해달라。

"美CIA 陰謀다"

리비아, 非難공세

【트리폴리8日AP=聯合】리비아 관영 자나통신은 8일 리비아여객기 피납사건은 미중앙정보국이 꾸민 음모라고 8일 비난했다。

자나통신은 이날 피납사건이 3백만인구의 석유부국인 리비아를 혼란시키고 리비아에 대한「테러행위」를 개시하려는 CIA의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7일 리비아 여객기를 납치한 3명의 레바논 무장회교도들이 석방할것을 요구하고있는 무사·사드르의 사진。【런던 8日AP電送=聯合】

사하로프 위독

美下院, 蘇박해비난 決議案

【모스크바8日UPI·外信=聯合】전세계지식인들의 성원과 우려속에 부인과함께 17일째단식투쟁을 벌이고있는 소련반체제핵물리학자 안드레이·사하로프 박사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있다고 소련과학원장이 8일 밝혔다。

아나톨리·알렉산드로프 원장은 이날 사하로프박사의 며느리가될 리자·알렉세예바(26)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하로프박사의 건강이 매우 나쁜상태에있다고 전했다。

소련수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75년 노벨평화상수상자 사하로프박사는 미국에있는 의붓아들 알렉세이·세묘노프군과 결혼할수있도록 알렉세예바에게 출국비자를 발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부인 엘레나·보네르여사와함께 지난 11월22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편 미하원에는 「지칠줄 모르고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하로프박사에 대한 소련당국의 「사악한 박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지난주 상원에서 승인된결의안과 비슷한 이 결의안은 소련당국에 대해 사하로프박사의 단식을 끝내기 위한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베네수엘라機 납치 게릴라 쿠바서 投降

【아바나8日UPI=聯合】3대의 베네수엘라여객기를 공중납치, 8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무장게릴라들은 [illegible] 아바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核現狀동결을"

美反核운동 전국에 擴散

【워싱턴8日AP=聯合】미국의 반핵운동은 핵전쟁이 레이건 행정부의 선택수단으로 채택됐으리라는 우려에 자극받아 일반민중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면서 미전역으로 확산되어가고있다。

미국의 반핵운동은 그러나 미핵미사일의 유럽 배치계획에 항의한 최근의 대대적인 유럽 반핵데모와는 달리 핵무기생산의 현상동결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취지의 미반핵운동은 일부 성공을 거두기 시작, 뉴잉글랜드지방의 24개읍이 핵동결의 찬성을 가결했고 시애틀가톨릭교의 레이먼드·헌트손대주교는 가톨릭교도들에게 연방세의 반액을 「핵우산」에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촉구하고나섰다。

油價 소폭引下 OPEC 검토

【아부다비8日路=聯合】13개국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기석유상회의가 9일 아부다비에서 이틀간 예정으로 개막돼 소폭적이나마 새로운 유가인하조치를 단행할것같다고 정통한 회의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蘇, 駐日大使곧경질

【東京9日AP=聯合】소련은 일본주재 소련대사의 경질을위해 드미트리·폴리안스키 현대사를 곧 본국으로 소환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소식통들에 따르면 蘇聯이 폴리안스키의후임으로 누구를 駐日大使에임명할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메아리

1958년8월23일 대만해협엔 오랜 포성이 멈췄다。金門·馬祖島의 위기가 정전으로 바뀌었다。하루 건너 대륙과 마주 쏘아대던 포격전이 중단된것이다。포화의 정치가 곧 평화일수는 없다。

확성기를 통한 선전방송은 여전히 뜨거웠고 「풍선작전」도 쉬지 않았다。포성이 끊긴 심리전의 대결이 가열된 셈이다。자유중국의 풍선작전은 바람의 勢를 얻어 원자이드 계열을 넘었다。식품과 옷, 약품등을 많을 땐 1백80kg씩이나 기구에 싣고 3만m 상공에서 세찬 바람을 타며 중국대륙으로 날아갔다。이중 멀리 간것은 티베트에까지 도달한것이 있다고 전해진다。중공측은 이에 질세라 연을 이용하여 대만쪽으로 선전전단을 뿌렸다。

대만이나 중공측은 이 사실을 위장하거나 잡아떼지 않았다。북괴가 고무풍선을 써서 불온선전물을 뿌려온것은 우리국민 누구라도 아는 사실。중국의 경우와 다른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木石처럼 부인하는 사실。간첩선이나 장비를 판문점에 끌고가 코앞에들이대도 잡아 떼면서 우리 내부의 일이라고 능청을 떤다。『평화의 얼굴』을 가장, 한국의 혼란을 조장하며 부추기는 심리전이 북괴의 한 대남전술이다。

휴전선 남쪽엔 위장평화공세를 펴면서 아프리카 여러나라에선 「傭兵노릇」도 서슴지 않고 있다。짐바브웨, 앙골라, 세이셸群島에 군대를 보내 전쟁의 불길을 당기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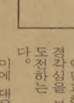
며칠전 평양에선 위장평화선전기구를 동원하여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대남비방을 선동했다。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저들의 갖가지 『策動』은 갈수록 늘어날것이 분명하다。

이번엔 『가정의 단란』을 즐기던 서울의 한민가에 전전지뭉치가 날벼락처럼 떨어지게 했다。상투적인 구호가 적힌 불온유인물을 실은 북괴기구에 쓰였던 것이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스럽지만 우리에게 새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다。평화에 도전하는 심리전 격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자세를 더 굳게 가다듬어야겠지만 예기치 못할 물리적 피해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北傀의 풍선



제3의 候補 5명 추천

유엔總長선출 살림후보도 辭退

【유엔본부9日=金泰雄특파원】발트하임 현직유엔사무총장과 경합하던 탄자니아외상 살림도 8일 드디어 사무총장선거에서 사퇴했다。아직 살림은 발트하임과 같이 희미하나마 사무총장의꿈을 버리지않고 있다。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안팎의 공기도 그들과의 거리를 점점 멀리하고 있는것같다。이례적으로 3選을노렸던 발트하임은 지난3일 자신의 이름을 사무총장후보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했었다。

◇살림外相

아가칸王子 빼곤 모두 中南美인사

蘇선 카스타네다 멕시코外相 지지

살림을 밀던 안보이사회12월의 의장 오투누우간다대사는 8일밤 기자회견에서 安保理는 새로운 후보자들의 추천마감을 9일하오 6시까지라고 공표했다。

발트하임과 살림 두경쟁자가 공식적으로 물러나자 제3의후보 5명이 오투누의장에의해 추천되었다。

새로 등장한인물들은 유엔사무차장을 지낸 페루의 쿠에야르대사, 가이아나외상과 유엔대사를 지낸 영연방기구 사무총장 람펠, 아르헨티나의 유엔대사를 역임했고 현駐英대사인 로저스, 파나마현외상 아이에카, 유엔난민처장을지낸 사드루딘·아가칸 왕자이다。

이밖에 멕시코외상 카스타네다는 입후보여부를 확정치 못하고 있으나 거부권을가진 상임이사국과의 사전 의사타진이 끝난후 결정할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유엔本部9日UPI=聯合】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차기 유엔사무총장선출을 놓고 앞으로 수일내에 6~7명의 새로운 후보들에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가운데 소련은 호르헤·카스타네다 멕시코외상을새로운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데동의할것이라고한 소련소식통이 8일 밝혔다。

유엔 외교관들은 레이건미국 행정부도 출범이후 멕시코와의 관계개선을 계속 추진해온 점으로 미루어 약간의 유보적입장에도 불구하고 카스타네다후보를 지지할것으로 믿고있다。

"總罷業땐 現政權붕괴"

바르샤바 勞組支部 "國民이 政權장악" 경고

【바르샤바8日UPI=聯合】폴란드 자유노조의 바르샤바지부는 8일 정부가 만일 자유노조로 하여금 무제한 총파업을 벌이도록 자극할경우 폴란드인민이 정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할것이라고 경고했다。자유노조의 바르샤바지부는 이날 언론기관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자유노조가 총파업을 벌일경우 현정부가 와해되고 폴란드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것이라고말했다。

이 성명은 또 총파업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자유노조의 권력장악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민이 권력을 장악하느냐의 문제가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노조의 이같은 경고는 폴란드 가톨릭교구의 최고위 지도자인 요제프·글렘프 대주교가 의회에 대해 자유노조를 총파업의 궁지로 몰아넣을 비상조치법안을 가결하지 말것을 호소하는등 전례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나선후 발표된것이다。

11일 전국勞組 지도자대회

【바르샤바8日UPI=聯合】폴란드자유노조는 오는11일과 12일 이틀동안 그다니스크에서 전국지도자회의를 개최, 11일에있을 폴란드의회의 파업권제한법안처리결과에 따라 총파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인것으로 8일 알려졌다。

폴란드의회 부의장인 표트르·스테판스키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회견에서 의회가 오랫동안 미뤄온 새로운 노조법을 심의할때 공산당이 제안한 파업제한법안도 같이 토의할 예정이다。

베트남軍 黃雨사용 라오스人 6만피해

【방콕8日TNA=聯合】베트남군이 라오스에서사용한 이른바 『黃雨』라는 유독화학물질은 지금까지 약6만명의 라오스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타이에 있는 전라오스軍대령 주·무아·리가 8일 밝혔다。

樣相 달라진 공중 拉致劇

베네수엘라·리비아機 사건서 드러난것

要求사항 形式으로 그쳐

「理念」돋보이게 多國비행

「납치범 本國인도條約」 쿠바·強硬아랍國외면으로 失効

테러의 현주소인 하이재킹 수법이 달라지고 있다。

납치ㅡ인질ㅡ정치범석방요구ㅡ테러보호국 착륙으로 끝나던 종래의 정석이 납치ㅡ인질범석방ㅡ현시적주장ㅡ多國비행ㅡ테러보호국 귀착으로 변했다。

목적은 그러나 변함이 없다。테러리스트가 속한 단체의 이데올로기를 충격적방법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다만 전파의 파장이 多國化한 것뿐이다。따라서 질질 끌고있는 공중납치방법의 다국간 협약은 절실해졌다。

지난7일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여객기3대가 무장게릴라에 의해 거의동시에 납치됐고 이어8일에는 리비아 여객기1대가 취리히를 떠나 트리폴리로가던도중 레바논인들에게 납치됐다。베네수엘라기 납치범들은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테말라, 파나마등 중남미6개국을 빙빙돌다가 쿠바의아바나에 납치극 약32시간만에 투항했다。

또 피납리비아항공기는 베이루트↓아테네↓로마↓베이루트↓테헤란으로 종횡무진의 납치항로를 계속했다。납치범인들이 내건 인질금3천만달러, 정치범 석방등은 형식적인 주장같았다。베네수엘라기 납치범들의 경우에는 반미주의,친카스트로주의, 그리고 미국의 엘살바도르개입 반대를 파장넓게 中南美제국에 심으려는 게 분명했다。

테러문제전문가들이 『테러의 궁극적 목적은 폭력그자체에 있는것이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효과』라고 지적하고 있는것과같이 납치범들은 중남미에대한 미국의 적극적개입에 대항하여 反美무드를넓게 인식시키려고 하이재킹영역을 넓힌게 분명하다。

하나의 테러행위가 목적을 달성했을경우 테러는 전염병같이 번져 나간다。

테러리스트들은 하이재킹을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가큰 수단으로 생각하고있다。2~3명의 테러리스트만으로 승객 2백~3백명을 인질로 할수있으며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갈수 있다。무기도 수류탄1개로충분하다。

하이재킹은 2차대전직후 東歐圈의 난민들이 서방으로 망명하기위한 수단으로 성행한이후 줄곧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상도 달라지고있다。

60~70년대에 일어난 하이재킹가운데 범인이 본국에인도된 경우는 7~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치난민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비호를받아 정치범으로 대접받는 특혜를 받았다。

그때문에 하이재킹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날로 인기를끌고있다。

항공교통수단의 확대로 미국에서만 하루에 2만여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상황에서 검문·검색에의한 방지는 한계가 있다。

지난63년 88개국은 여객기납치범인도」를 골자로한 東京조약을 체결했고 70년과71년 이를 다시 보완하기위해 국제법에서의 처벌규정을 정한 헤이그조약과 몬트리올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78년에는 본에서 미국、서독,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등 서방7개국이 『각국은 여객기납치범들을 처벌 또는 본국에 인도할 것』을 합의한「본선언」을 채택했다。

그러나 주로 납치범들이즐겨찾는 쿠바와 중동의강경과 국가등 제3세계 일부국가가 이를 외면, 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이재킹에 대해 타협하지않는다는 강경노선을 채택하고있어 최근 테러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다。따라서 납치범들은 범행대상과 지역을 하이재킹에 보다 소극적태도를 보이고있는 제3세계권으로 바꾸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과함께 테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가다듬고 현재 리비아와 테러공방전을 벌이고있지만 이번처럼 베네수엘라여객기납치범들을 받아들인 쿠바와같은 테러리스트들의 성역이 있는한 하이재킹 공포는 계속될것같다。【崔海雲기자】

◇리비아여객기를 아테네공항에강제착륙시킨 레바논 납치범중 1명(여객기우측날개밑에 앉아있는사나이)이 기관총을들고 기체에 접근한 식량공급차량을 감시하고있다。【아테네 8일AP電送=聯合】

國際焦點

로보트가 사람을 죽였다

日工場서 무쇠팔로 工員내리쳐

【東京8日UPI=聯合】생산성향상을 위해 채용된 공업용로보트가 지난 7월 한공장근로자를 『살해』한사건이 8일 뒤늦게 밝혀져 세계최대의 로보트이용국인 일본산업계에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日本서부 효오고(兵庫)縣노동기준국은 이날 지난7월 4일 아까시(明石)소재 가와사끼(川崎)중공업공장에서 우라다·켄지(37)라는근로자가 작업도중 자동차부품처리로보트로부터 강타를 얻어맞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라다는 이날 성능이 불량한 이로보트를 수리하고 나오다 무심결에 작동스위치를 넘는바람에 로보트의 무쇠팔이 그를 기계동체에 대고 짓눌러 버린것。사고가나자 동료들이 몰려갔으나 로보트의 작동법을 몰라 우두커니 바라볼수밖에 없었다。

노동기준국은 로보트이용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중시, 그동안 발표를 보류한채 사고원인을 조사해 왔는데 이날 사건경위를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미숙과 공장의 안전기준미달이 사고의 주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宇宙창시자는 분명히 神"

開廷된「創造·進化論」재판 증언

【리틀로크(美아칸소州)8日UPI=聯合】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두가지 이론 즉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재판이 7일 美아칸소州 리틀로크의 연방지법에서 개정됐다。

공립학교에서 이 두이론을 동등하게 가르치도록 규정하고있는 아칸소주법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하고있는 美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측의 증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아칸소州法이 과학적타당성이 없는것으로 종교를교실로 불러들이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시카고대학의 랭던·길키신학교수는 이날 미민권연맹(ACLU)이 이 주법을 걸어 제소한 소송의 첫공판에서 『창조주는 분명히 신이며 신은 우주를 탄생시킨 존재』라고 증언했다。

이재판은 지난 1925년 테네시주의 생물 교사였던 존·스코프스씨가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1백달러의 벌금형을판결받았던 사건의 현대판으로불려지고있다。

과학과 종교간의 차이에관한 저서를낸 길키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과학은 창조론의 경우처럼 초자연적인것에서부터 해답들을 구할수없다고 말했다。

海外토픽

내년 베긴首相암살

★美國점장이들이 豫言

내년에 엘리자베드 영국女王이 찰즈황태자에게 王位를 讓位할것이며 메나헴 이스라엘수상은 암살될것이라고 미국의 유명여성점장이들이 8일 예언했다。

이들은 82년에는 좋은뉴스가 드문반면 큰 재난이 잇달것이라고 전망했다。

레이건美 대통령과 교황요한·바오로2세의 피격을 예언했던 케브린다·킨카메여인은 베긴수상이 각외도중 발생할지모르는 폭발사고로 사망하거나 폭발현장에 급습한 테러범들에 의해 사살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의 대통령당선을 예언했던 카렌·웰치여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와 인기상실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 사임하고 부시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것이라고 말했다。

아드리엔느·골더여인은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엘리자베드女王이 讓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녀는 또 재클린·오나시스여사가 새로운 애인을 찾게되나 그와 결혼하지는 않을것이며 그녀의 재산을 화장품회사에 투자하게 될것이라고 예언했다。【뉴욕=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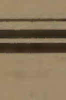
文化短信

대한민국 作曲賞 수상作 4曲확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제정한 제5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국악부문=우수상 합주곡「매굿」(金永東작곡)「대금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합주곡Ⅱ」(李康德작곡)▲양악부문=관현악곡「관현악을 위한Ⅵ」(金容振) 실내악곡「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용」(尹良錫)

상금은 각 1백만원씩。시상식은 11일하오3시 문예진흥원강당。



한인업체를 도웁시다 !

많은 한인업체들은 불철주야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영난에 부딪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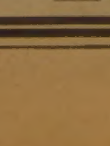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서로 도와 굳게 모아진 힘으로

한인업체를 키웁시다.

한인업체의 경제적 발전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533-2361



서울 사대부고 망년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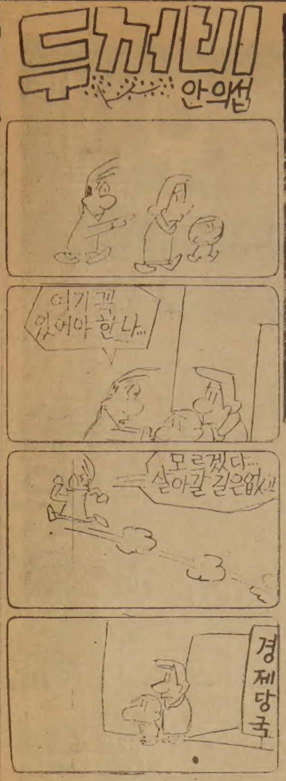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다한 일은 태산 같기만 합니다. 몽땅 새해로 미루고 하루저녁 그리운 동문들과 함께 해 묵은 사연을 나눌 모임이 마련되었읍니다. 다채로운 여흥순서를 마련했사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두루 연락하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 12월 26일(토) 오후6시
장 소 : 프린스 호텔1층 "프린세스룸"
YORK MILL & DON MILLS
회 비 : $40.00(커플), $25.00(싱글)
※COCKTAIL, 복권추첨, 여흥순서
연락처 : 백 이 삼—251—6578
김 강 옥—298—4232
송 광 호—533—2364

복권추첨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장 백 이 삼



◇멸치에서 와르르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수법도 가지가지。 마른멸치 봉지속에 미화 3만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려던 회사대표가 金浦세관에 적발됐다。 【金首宗기자찍음】

深夜 유치원서 "疑問의불"

함께살던 女債權者 기도회나가 無事

利害얽킨 放火추정 搜査

채권자가 빚을받기위해 살고있던 채무자소유의 유치원건물에 원인모를불이나 경찰이 일단 채권채무와 관련된 방화로보고 화인수사에 나섰다。

7일 상오0시5분께 서울城北區 長位3洞 125光云학원부설 月溪유치원(원장직무대리 朴顯秉·58) 1층교무실에서 불이나 책상, 집기와 건물내부 10여평을 태워 1백70여만원 어치를 태우고 20분만에 꺼졌다。

불이난 유치원건물 2층방에는 월계유치원 전원장 曺貞男씨(50·여·구속중)에게 2천7백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못한 수溢愛씨(49·여)가 지난해7월부터 살고있었으나 숲씨는 4일 기도원에 가고 없었다。

유치원고용원 裵군에 의하면 숙직실에서 형과 전원장 曺씨의 운전사, 曺씨의 남편 친구 조모씨 그리고 曺씨의 아들등 5명이 라면을 끓여먹고있는데 우당탕소리와 함께 전기불이 꺼져 밖으로 나가보니 유치원2층에서 불길이새나오고 있었다는 것。

裵군등이 있던 숙직실은 불이난 교무실과는 벽돌벽으로 막혀있고 출입문도 따로 나있어 裵군등이 불이난 사실을 알수없는 구조로 돼있다。

경찰에서는 ▲유치원 교실에는 평소 연탄난로를 피워왔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인 5、6일에는 불을 피우지 않았고 ▲숲씨가 살던 방앞에있는 목욕탕에 있던 한말들이 석유통이 계단쪽마루에 석유가 쏟아진채 쓰러져있었고 ▲그위에 타다만 성냥통이있었으며 ▲최초 감식결과 옥내전기배선에는 이상이없었던 점등을들어 일단 이해관계가 얽힌 방화로 보고 수사중이다。

불이난 월계유치원은 지난해4월 사망한 광운학원설립자 曺光云씨가 70년2월에설립, 4녀인 曺貞男씨가 운영해왔다。

전원장 曺씨는 유치원을 맡은후 여러사람으로부터 유치원운영에 필요하다며 많은 돈을 빌어쓰고 부동산에도 손을댔으나 재미를 보지못해 지난달중순 채권자들의 고소로 서울지검에 구속기소됐는데 숲씨는 曺씨에게 돈을 떼인후 가정불화로 집에서 나올수밖에없자 지난해 7월부터 유치원에 와 기거해 왔다는 것이다。

3萬弗 密搬出기도

멸치부대에감춰 金浦空港나가려

會社代表검거

미화 3만달러(한화 2천1백만원)를 멸치봉지속에 숨기고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회사대표가 金浦공항에서 적발됐다。

金浦세관은 8일 하오9시40분 로스앤젤레스행 KAL 012편의 수하물로 3만달러가든 멸치봉지를 부치려던 D산업 대표 孫述琿씨(53·서울 中區 新堂洞 333의123)를 적발,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세관에의하면 孫씨는 남대문시장근처 암달러상에서 1백달러짜리 지폐로 3만달러를 환전한뒤 이돈을 1백장씩 3개의 편지봉투에 나눠넣고 다시 2개의 멸치봉지속에 깊숙이 감췄으나 1백달러짜리 미화에는 특수금속처리가돼있어 X선투시화면에 돈의 윤곽이 드러나고만것。

히로뽕密賣團구속

化工藥品으로 僞裝해팔아

【釜山=聯】부산지검 특수부 辛光玉검사는 8일 히로뽕 밀매단 3명중 판매책 金順堀(42·부산西區槐亭洞551)·鄭尙澤씨(29·부산南區凡一洞531)등 2명을 검거,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제조공급책 崔相禹씨(42·부산中區寶水洞1가11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金의집 밀실에 숨겨둔 히로뽕 2.4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은 지난10월 달아난 제조공급책 崔씨로부터 히로뽕 2.4kg을 받아 자기집에서 3백~5백g씩 소량으로 나누어 화공약품처럼 포장한뒤 이중 1.5kg을 鄭씨에게 팔아넘기려다 붙잡혔다는것。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한국일보
533-2361~4

榮山江河口堰 無料도로에 貨物車통행료 멋대로徵收

木浦~靈岩 20분거리 2시간 迂廻소동

警備員들 臺當 3~5千원씩

【木浦=聯】8일 개통된 木浦-靈岩간 榮山江하구언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들로부터 경비원들이 3천~5천원씩의 통행료를 받고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9일 화물차 운전사들에 따르면 이도로는 개통과 동시에 모든차량에게 무료통행이 허용됐는데도 양쪽 입구의 경비원들이 화물차의 통행은 허용되지 않고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있다는것。

이때문에 8일 하오5시30분께 靈岩에서 木浦로오던 木浦용달소속 전남7자4903호 용달트럭(운전사 李來善·32)등 수십대의 트럭들이 이도로 개통으로 木浦를 20분거리에 두고도 2시간이상 걸리는 榮山浦로 돌아가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대해 농업진흥공사 榮山江사업소 裵亨소장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편행낭 5百萬원증발

범인은 10代集配員

3백86만원 압수

【濟州=聯】西歸浦경찰서는 9일상오3시께 中文우체국 우편행낭 현금도난사건의 범인으로 임시집배원 李모군(19·中文洞)을 검거, 갖고있던 3백86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야간주거침입및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인 李가 사건발생 직후 西歸浦시내은행주변을 배회했다는 정보를입수, 李군의 행적을조사하던중 李군이 지난1일 南濟州군농협에 자신의 명의로 2백70만원을 예금한 사실을 확인, 추궁한 결과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李군집앞마당돌담옆에 있는 항아리밑에서 2백70만원이 예금된 南濟州郡농협西歸浦지점발행 예금통장1개, 제일은행西歸浦지점발행10만원권 자기앞수표10장과 현금등 모두 3백86만원을 찾아냈다。

李군은 지난해6월17일 中文우체국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된후 용돈을 마련하기위해 우편행낭 현금을 노려오다 지난달23일 전화요금이 수납된 사실과 사고당일 숙직근무자였던 중문우체국 전차석 鄭成夫씨(32)가 현금이 들어있는 행낭을 금고에 넣지 않는등 소홀히 다룬 사실을 알고 이날자정께 지하실비상구를 통해 우체국에 들어가 현업실내금고옆에 놓여있던 행낭의 봉인을 뜯고 행낭속에 들어있던 현금·수표등 9백만원중에서 한꾸러미로 돼있던 현금5백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것。

國校生 집단怪疾

60여명高熱·구토

【盈德=聯】경북盈德郡丑山面丑山里 축산국민학교(교장 朴貞鎬·56)저학년어린이들 사이에 지난7일부터 고열에 설사, 구토를 일으키는 병이번져 9일현재 60여명이 집단으로 앓고있다。

9일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7일 1·2학년 어린이 10여명이 38~40도의 고열에 구토, 설사증세를 일으키며 앓기시작한뒤 9일현재 전교생 7백39명중 1·2·3학년 어린이 60여명이 같은 증세로 앓고있으며 8일에는 20여명이 결석했다는것。

電柱발판볼트 放置

처녀가 눈찔려失明

【大邱=聯】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처녀가 보도에 설치돼있는 전신주의 발판볼트(발판침쇠)에 눈을 찔려 실명한 사실이 9일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4일 상오8시40분께 大邱市中區南山洞925의5 蔡松殷양(29·大邱市中區南山1洞674의12)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도와 인도에 서있는전신주의 발판볼트에 오른쪽 눈을 찔려 大邱동산기독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으나 한쪽만은 5일 실명했다。

蔡양은 이날 자신이 근무하는 M다방에 나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뛰어건너 인도에 올라서는 순간 전신주에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는것。

蔡양은 행인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발판볼트에 찔린 충격으로 시신경이 모두 망가져 인조안구를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신주는 행인의 왕래가 빈번한 횡단보도앞 인도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길이 13cm의 발판볼트가 전신주 밑부분에서 높이 1m80cm이상 부분부터 부착되어야하는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1m30cm지점에 박혀있었다。

문제의 발판볼트는 횡단보도에서 허리를 구부리면 성인 남자의 눈이 바로 맞부딪칠수 있는 높이에 박혀있어 사고의 위험을 안고있었다。

그동안 행인들은 횡단보도를 바쁘게 건너가다 이전신주와 발판볼트에 가슴·머리등을 자주 부딪쳐왔으며 이때문에 이일대 주민들이 전신주를 옮겨줄것을 한전大邱지점측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그대로 방치돼왔다。

담무너져 어린이壓死

建築主에 賠償金3천3백만원 請求

【釜山=聯】길에서 놀던중 신축건물의 블록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사당한 어린이의 부모가 건축주와 건축업자를 상대로 3천3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일 부산지법에 냈다。

원고인 부산東萊區西洞282의37 金哲敏씨(40)부부가 피고인 건축주 李계순씨(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1가111)와 건축업자 李병규씨(부산東萊區溫山洞542의61)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고를 낸 담과 철대문기둥에 사용한 블록이 강도미달의 불량 건축자재였으며 관리까지 소홀해 사고가 났다면서 마땅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곡·피아노의밤 국립극장 소극장

X머스를위한 가곡과 피아노의 밤이 11일하오7시 서울音大동창회주최로 국립극장소극장에서 열린다。

출연자는 박정순(총신대전임강사)、김민숙(서울音大강사)、신영자(〃)、이숙영(〃)、강혜자씨등。

韓國 書道會員展 藝總會館서

제5회 韓國書道會회원전이 10일부터 19일까지 예총회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회장인 金同洙씨의 「佛心」을 비롯하여 48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作家 吳贊植씨선정 제6회 小說문학賞

한국소설가협회제정 제6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자로 吳贊植씨(사진)가 뽑혔다。수상작은 「倡夫타령」、시상식은 21일 하오6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父親의 사냥꾼 이야기

나의 이력서

〈명예·元一漢〉

元一漢 ⑬

韓國의 짐승分布등 論文발표

호랑이쫓던 모험담·몰이꾼의 위트등 흥미끌어

사냥에 특별한 취미를 가졌던 아버지는 「사냥과 사냥꾼의 이야기」란 논문을 1915년 영국왕립 아시아학회지에 발표한 일까지 있다。

이 논문엔 한국의 짐승분포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은 다음에 드리는 山神祭등 여러가지 풍습이 상세히 소개돼있다。

그당시 한국야생동물중에서 사냥꾼에게 가장 재미있는 표적은 산돼지였다。 산돼지가 오래 묵게되면 흙떠지가 등에 두툼하게 달라붙어 거기서 나무가 자랄정도의 관록이 쌓이게된다。 아버지는 사냥나가서 산돼지 한마리 잡아보자는 말을 「나무하나 자르러 가보자」고 우스개 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한때 강원도 어느 산중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날 끈질기게 추적하기도 했다。 호랑이가 다닐만한 길목에 염소를 매어놓고 밤새 지켜도보고 덩굴이 얽혀서 우거진 숲속에 숨어있지 않나 해서 뒤어든적도 있다。

이때 그 숲속에 호랑이가 있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불쑥 나타났다면 아무리 총이 있다해도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고생한 보람이 있어 결국 호랑이로 보이는 짐승을 발견하게 됐다。 마침 발견된 장소가 나무가지가 두갈래로 갈라진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나무가지 사이로 몸통을 쏘아맞추기에는 그틈이 너무 좁고 머리통을 맞추기는 쉽고 망설임끝에 뒤부분을 쏘았는데 그만 꼬리를 맞고 달아나버렸다는 것이다。

이때 달아난 짐승은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호랑이 같았으면 아무리 추적이 끈질기다해도 쉽사리 총알을 맞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참장난감총을 가지고놀무렵의 가족사진。내앞에 쌍둥이 동생 요한과 제한이 앉아있다。

한번은 사냥꾼 일행이 여러날을 헛탕친끝에 마침내 산돼지 한마리를 발견 뒤쫓고 있었다。

몇개의 산등성이를 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한지점에 이르러 숯굽는 사람이 「몇마리나 잡았소?」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한마리도 못잡았다고 대답하기가 부끄러워 아무말도 못하고 묵묵히 산돼지만 뒤쫓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몰이꾼 한사람이 「지금 쫓는 놈에다 아홉마리 더 잡으면 열마리요」했다。

나는 평소에도 가끔 느끼지만 한국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위트가 있고 특히 사냥꾼들의 위트는 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사냥을 다니다보면 산중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은 한겨울에도 허름한 처소에서 보내기 일쑤다。

숯장이들의 방이라고 들어가보면 나무로 얽어놓은 목벽사이로 찬바람이 휘휘 지나간다。

이를 보다못한 아버지가 그들에게 나무사이로 뚫린 바람구멍을 흙으로 좀 막으면 따뜻할 터인데 왜 이렇게 춥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한 숯군들의 대답이 「이 서양양반 과학을 전연 모르는군。 한쪽 구멍만 막으면 바람이 방안에 남아있겠지만 여기저기 뚫렸으니 바람이 이쪽구멍으로 들어왔다가 저쪽구멍으로 나갈게 아니요?」했다는 것이다。

몰이꾼과 숯군들의 위트가 막상막하가된 셈이다。

아버지가 사냥을 즐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렸을때도 지금 어린이들과 똑같이 장난감 총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놀았다。

이를 보고 아버지는 「제발 주일날은 장난감총을 가지고 놀지마라」고 타일렀다。 나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것이 아니고 다만 총을 메고 왔다갔다 할 뿐이다」라고 스스로 대답했다。 이것도 양심논쟁의 하나라할까?

장꾼줄어 시골장褪色일로

尚州 28개 5일장 9개소로

거의 都市이용

【尙州=聯】시골사람들의 유일한 생필품구입 및 정보교환장소였던 시골장이 퇴색돼 장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경북尙州郡내의 경우 10여년전만 해도 18개읍·면 28개소에 5일마다 장이 섰으나 지금은 2일·7일장인 尙州장을 비롯해 9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장꾼도 크게 줄어 몇년전만해도 2만여명이 모였던 尙州郡化西面 화령장은 10배가 줄어든 2천여명이 상오10시께 모였다가 하오2시께 대부분 헤어지고있으며 장짐을 실은 차량도 2~3년전의 20~30여대에서 2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음주시는 운전금지

토론토

쓰레기 수거 변경일

—크리스마스(금)12월25일1981년
—박싱데이(월)1981년12월28일
—새해(금)1982년1월 1일

● 정기월요일(12월28일)대신 12월29일(화)에 수거됩니다.
● 정기금요일(크리스마스)와 화(12월29일)대신 12월30일(수)에 수거됩니다.
● 새해에는 쓰레기를 수거치 않고, 다음 정기수거일 1월5일(화)에에 수거합니다.

※부피있는 물품과 신문지는 12월23일(수)과1월6일(수)에 되나, 12월30일(수)에는 수거치 않습니다.

정확한 수거날짜에 쓰레기를 밖에준비해 두시기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토론토에는 18군데의 병과 쇠붙이를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10월에 283톤의 신문지와 41톤의 병, 5톤의 깡통이 수거되었읍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소식은(367-7742)로 전화하십시요.

R.M.BREMNER, P.Eng.,
F.I.C.E. 건설국장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블론디 —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보, 오늘밤 스태그 파티에 내가 함께 갈수 있느냐고 허브가 알고 싶다는데?" ※스태그 파티=남자들만의 파티

"오, 흐—흑… 당신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들어봐, 다시 가서 마누라가 예스라고 말할때까지 고집 부리란 말야"

"허브보구 이리로 올라 오래서 내가 부딪쳐 있는 상황을 보여 줘도 괜찮겠어?" "흐—흑—흑"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술집에 불…4명숨져

檢察、무허가建物·變態영업등 調査

【原州=聯】 9일새벽2시50분께 강원도 原州市中央洞2통1반 갈채살롱(주인 金성희·35) 2층룸에서 전기난로과열로 불이나 金현숙양(19)등 종업원4명이 불에 타 숨지고 종업원 金관석씨(23·原州市平原洞1통3반)가 중화상을 입고 原州기독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金씨에 따르면 이날 불은 밤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술에 취한 金양등 종업원 5명이 술에 취한채 살롱2층에있는 2평정도의 구석방에서 전기난로를 켜놓은채 함께 잠들었는데 방안에 불길이 번지며 등에불이붙어 밖으로 뛰쳐나왔다는것。

불길은 삽시간에 홀안으로 번져 카피트등 인화성물질이 깔린 8평짜리 2층홀을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는데 여종업원들은 술에 취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한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종업원들이 홀옆 주석방에서 잠을자다가 과열된 전기난로를 발견못해 이날에 인화된것으로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春川지검 原州지청(閔丙鉉검사)는 갈채살롱이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아 미성년자까지 고용하면서 변태영업을 해온점과 2층살롱8평이 무허가건물임을 밝혀내고 原州市건축과 보건위생과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갈채살롱은 경영주 金成姬씨(31)가 지난해 10월초 간이주점을 인수, 지난 7월2일 간이주점 양성화 방침에 따라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았으나 그동안 접대부를 두고 살롱으로 변태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사망자 ▲金현숙(19) ▲金미향(19) ▲金효정(19) ▲金대영(20·남)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소재로 킬리안이 안무한 「시편교향곡」 공연장면。

세계 발레에 새로운旋風

—체코出身의 按舞家 34세의 킬리안

海外文化

熱情과耽美의 「신포니에타」

78년 美순회로 名聲떨쳐

스카우트提議 모두 거절…和로 복귀

오늘날 세계 발레 무대의 젊은 안무가중에서 가장 재능있고 기대되는 안무가는 누구일까。 월터·테리등 미국의 저명한 무용평론가들은 서슴지않고 지리·킬리안이란 이름을 든다。

지리·킬리안은 1947년 3월21일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태어나 현재 네덜란드·댄스·디어터(NDT)의 수석안무가로 일하고있는 30대 무용가。

NDT는 59년 헤이그에서 미국인무용가 벤·헤커비가설립한 무용단으로 78년 킬리안이 안무한 「찰스턴」과 79년 「신포니에타」의 열광적인 미국순회공연이후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작은규모의 단체이다。

무명의 안무가 킬리안을일약 세계발레계의 최정상 안무가로 주목받게한 「신포니에타」는 체코작곡가 레오스·야나체크의 음악을 소재로 안무한것으로 체코인 특유의열정과 탐미적 춤사위가 백미를 이루는 작품。

이후 킬리안은 「신포니에타」성공 이후 미국무용계에서 「천재적 안무가」란 극찬과함께끈질긴 안무요청을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다시 NDT로 돌아갔다。 그러나 美무용계의 집요한 공연요구로 79년뉴욕시티·센터 공연에이어올여름의 뉴욕 메트로폴리턴오페라무대、워싱턴근교에서 개최된 울프·트랩·페스티벌과 보스턴의 메트로 폴리턴센터서 3차례 공연을 가졌으며 너무나 대성공을거두어 그는세계적인 발레단단장들、제작자들、극장책임자들이 사정조로 매달리는 공연교섭에더욱 시달리게 되었다。

물론 현 세계 발레무대에 있어 킬리안이 처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이때문에 34세의 젊은 나이의 킬리안은 발레무대계인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유망안무가로 등장한 것이다。

아메리칸 발레디어터의 단장인 세계적안무가 미하일·바리쉬니코프는『킬리안이라구요, 좀 어린 맛이있지만 그를 끌어 올수만 있다면 난우리 무용단을 기꺼이 그에게 맡기겠다』고 서슴지않고 말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있는 젊은세대의 안무가로는 덴마크태생의 피터·마린、이튼·발레의 스튜어트·세바스찬、보스턴·발레의 브루스·웰즈、싱가포르태생의 주산·고、함부르크·오페라·발레의 존·뉴마어등이 꼽히지만 현재로서는 지리·킬리안과 맞먹는상대는 없다。

세계 발레계의 시선을받고있는 킬리안이 안무의 열정을 느낀 것은 9세 부터。 15세에 프라하 콘서바토리에 입학、67년부터 런던 로열발레스쿨에서 발레공부를 했고 68년 슈투트가르트·발레단원이 됐다。

여기서 단장인 故존·크랜코의 격려로 그는 무용수로서 보다는 안무쪽에 관심을 돌렸다。

어려서 그에게 안무의충동을 준것은 그림조각 연극음악등이었고 오늘날에는 이모든 예술의 종합적인 인상에서 안무의영감을얻는다는것。

지난 7월15일~26일 공연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소재로 한 「시편교향곡」과 슬라브·마르티니의 「들판의 미사」를 소재로 한 「병사들의 미사」등 7개의 작품은 그의 이런 면모를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무대였다。 【LA지사=朴興津기자】

亞洲野球 총회

18일 서울개최

中共代表 온다

亞洲선수권戰 부활등 논의

【東京支社】 아시아 야구연맹총회가 7년만에 오는 18·19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게된다。 이번총회의 주요의제는 中共가입문제와 아시아선수권대회의 부활。 국제아마야구연맹의 부회장인 日本의 야마모또(山本英一郞)씨는 8일 이번 총회에 가입의사를 밝힌 中共대표도 참석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中共대표를정식초청할경우 中共이 받아들일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中共은 지난11월24일 야구대표팀을 日本에 파견、친선경기를갖는 한편 日本야구협회를통해 아시아야구연맹가입의사를 밝혀왔다。

한국、日本、필리핀、泰國、濠洲의 5개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야구연맹은 지난75년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서울)를 끝으로 활동을멈추었다。 이번총회는 야구의 올림픽채택운동을 펴고있는 국제야구연맹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연맹을 강화하기위해 소집되는 것이다。

이번총회에는 국제야구연맹의스미스회장(미국) 야마모또부회장(일본) 金鍾珞아시아지역 담당부회장、아시아연맹의 파손회장(필리핀)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시아연맹임원개선、82년서울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참여문제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된다。

李壽子 시드1번

英오픈탁구서

【런던7日聯】 내년1월6일부터 9일까지 英國크로우리에서 개막되는 英國오픈 탁구선수권대회에서 韓國의 李壽子(제일모직)가 여자단식에서 시드1번을 배정받았다。 남자단식의 金浣(제일합섬)은 3번、여단식의 安海淑(동아건설)은 6번시드를 받았다。

女子프로테니스

나브라틸로바 賞金랭킹 1위

【뉴욕8日聯】 美國의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선수가 금년도 세계각국 테니스경기에서 총81만1천4백37달러(한화약5억6천7백만원)를 벌어들여 최고수입을올린 여자프로테니스선수가 됐다。

금년도 윔블던 여자단식우승자인 크리스·에버트·로이드(美)는 55만3천1백62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금년도 여자테니스 고액소득자10명가운데 7명이 美國선수로 美國이 테니스최강국임을 과시했다。

금년도 여자프로테니스 고액소득자 톱10은 다음과같다。

①나브라틸로바(美81만1천4백37달러) ②에버트(美55만3천1백62달러) ③안드레아·예거(美38만1천1백15달러) ④트레이시·오스틴(美37만8천4백9달러) ⑤팜·슈라이버(美33만3천5백30달러) ⑥하나·만들리코바(체코33만1천6백81달러) ⑦웬디·턴벌(濠洲21만7천6백61달러) ⑧실비아·하니카(西獨19만8천98달러) ⑨앤·스미스(美18만8천3백11달러) ⑩바브라·포터(美17만2천8백67달러)

◇나브라틸로바

바둑소식

徐奉洙、다께미야에 不計勝

韓·日 교류전 1승1무승부

○…지난5일 일본東京에서 열린 韓·日프로바둑교류전에서 한국은 1승1무승부의 전적을기록, 우리의 棋力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이번 교류전은 徐奉洙7단對 다께미야9단(武宮正樹)、徐能旭6단對 趙治勳名人간에 벌어졌는데 徐7단은 黑을잡고 다께미야9단에 불계승을 거두었고 徐6단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仁川市長盃大會

京仁에너지우승

○…仁川직할시 승격기념 仁川市長杯쟁탈 제1회직장바둑대회가 지난달28·29일 간 仁川직업훈련원에서 열렸다。 이대회에는 모두 12개직장이 참가, 우승에 京仁에너지、2위에 京畿은행、3위에 일신제강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기원 國內最初

바둑달력 製作

○…한국기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바둑달력(사진)을 제작, 판매에 나섰다。 바둑달력은 37.5㎝×53㎝ 크기로 平日에는 2백60여 지의 定石을 수록했으며 日과 公休日엔 묘수풀이·死活문제를 실어 수읽기와 실전력을 키울수 있게 했다。 특히 초급,중급,고급문제를 적절하게 배합, 愛棋家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했다。 값은 2천원(문의처 ☎98-8552)。

女性위한 特別강좌

○…한국기원은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정서순화를위해 바둑강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강좌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것으로 숙녀반과 주부반으로 나누어 月·水·金요일 실시되는데 月회비는 1만5천원。 (문의는 ☎98-0119) 【策】

세번은짧게…선정

映評 최우수作品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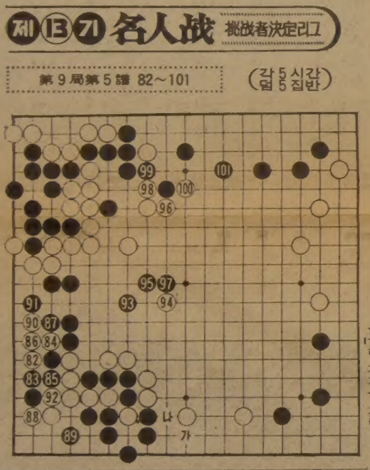
한국영화평론가협회(회장 金鍾元)가 제정한 제2회映評賞 최우수작품상에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일하오2시 시사실에서 거행되며 제13회 심포지엄도 곁들인다。 주제는 「81년도의 한국영화결산」-「전환기에선한국영화」(李英一)。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작품상=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감독상=金鎬善 ▲각본상=尹三六(피막) ▲여자연기상 ▲남자연기상 ▲촬영상 ▲기술상 ▲신인상 ▲최우수외국영화상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5譜 82~101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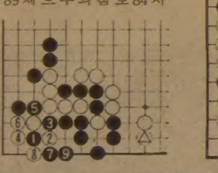
白(4段)姜勳〈2勝0敗〉 黑(4段)鄭壽鉉〈1勝1敗〉



白、絶妙한 誘導作戰

전문기사는 상대의돌을 잡으려할때도 시간을 마냥소비하며 과정과 결과를 철저하게 확인한다。 姜4단도 역시 좌하黑을 잡으려하다가 再三再四 수를 고쳐읽느라고 10분이나 지체했다。 그리고 결국 白82에 꺼붙인수는 하변白을 직접 공격하는 이상의 전과를 가져온 강수였다。

82로 직접 잡으려면 우선 白「가」에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참고도⊗표에 대하여 黑1의 好着이 있다。 白2에는 黑3이하9까지 강력한 역습으로 인해 白쪽이 오히려 낭패가 난다。 만약 참고도 白6자리에 白돌이 먼저 두어져있으면 물론 이黑은 헤어날 길이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白82로서부터 유도작전을 편것이 말하자면 절묘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黑83의 저항을 시도했지만 白84로 이하 88로 역시 참고도 6의 곳을 두게되었으니 이제는 黑89가 절대수여서 白은 90까지 黑4점을 편하게 잡아버렸다。 더 나아가 좌변黑을 미생마로 뜨게 만들었으니 黑은 삽시에 도망자 신세다。 이왕 이렇게 될바에는 黑89로 「나」에 버티고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黑이 곤경에 빠진 원인은 전보에서 공연한 白陣파괴를 서두른데 있었다。 【一凡】

길잃은아이 32일이나 감금

精薄아들과 놀게

40代主婦 입건

【富川=聯】 仁川富平경찰서는 9일 역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이웃집 다섯살짜리딸을 집으로데려다가 방에 가두고 32일동안이나 정박아인 자기아들과 놀게한 조주희여인(40·仁川市北區富坪2洞751)을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입건, 조사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여인은지난달5일 하오7시께 부평역 광장에서 혼자울고있는 이웃 친구 김춘희여인(41·仁川市北區富坪2洞760)의 딸 박미란양(5)을 발견、집으로 데려다가 가두고 정박아인 둘째아들 김모군(10)과 함께 한달2일동안이나 놀게했다는것。

미란양은 32일동안 김군과 놀면서 정박아인 김군에게얼굴과 오금을 꼬집히고 할켜 상처투성이가 됐다。

미란양은 김군에게 이같이 시달려오다가 김군의 어머니 조여인이 지난 7일하오7시께 미란양을 1백50여m떨어진 미란양집근처까지 데려가 풀려줌으로써 부모품에 안겼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13일 東京 亞太議員聯총회

한국대표 8명派遣

제17차 아시아·태평양議員聯盟(APPU)총회가 오는13일부터 18일까지 日本東京에서 개최된다。

이대회에 한국은 8명의대표단、(단장 金殷夏국회부의장)을 파견하는데 APPU명예회원인 閔炳權씨(前국회의원)가 주최국의 초청을받아 대표단과 함께 참석한다。

한편 朴浚圭국회사무총장은 APPU사무총장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대표단출발에 앞서 10일상오 출국한다。

한국대표단은 다음과같다。

金殷夏(단장) 鄭石謨 李興洙 沈相宇 金賢子(이상民正) 申鎭洙(民韓) 金永生(국민) 曺亨富(議政)

뉴욕의 韓人 역경속成功

위신·근면성·높은 敎育수준으로

NYT특집보도

特派員發信

다 한국 야채가게·세탁소·생선가게가 없는곳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뉴욕에사는 한국인수가 11만이라는 최근 통계를 인용한 뉴욕타임즈는 뉴욕시내에서 가장 눈에띄는 소수민족이 한국사람들인데 그것은 그들이 소규모의 상업에서 뛰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위신」을 생각하고 또 근면성 … 가 아님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또하나의 희망사는 KCIA이다。 77년 코리아게이트의 회청문회때 KCIA가 反政府인사들에게 위협을주었다고 알려졌었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그런일이 있었던것으로 믿고있다』고 NYT는 전했다。

메트로폴리탄면의 톱으로 장식된 이기사와 관련된 4장의사진은 퀸스거리를 아기손을잡고 즐겁게 얘기하며 거니는 두한국인 부인들、퀸스제일감리교회(한인교회) 김병서(폴킴)목사、아시아도서실의 이한영여사、이름이 밝혀지지않은 식품점 아주머니등이다。

二重과세 방지협약

締結國 30개국으로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국을 현재 12개국에서 30개국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간의 과세상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협정을 체결하게될나라는▲핀란드▲말레이지아▲스웨덴▲뉴질랜드▲모로코▲노르웨이▲濠洲▲스리랑카▲필리핀▲이집트▲印度▲룩셈부르크▲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이탈리아▲칠레▲페루▲나이지리아등 18개국이다。

敎師도한명 弟子도 한명

낙도上島에 초미니 國校

○…전남麗川郡三山面 上島에있는 草島국교 上島분실은 교사1명에 학생 1명인 초미니학교。 麗水항으로부터 뱃길로 1백10㎞떨어진 上島에는 4학년인 李惠珠양(10)과 홀아버지 李鍾國씨(54)、그리고 지난해 6월 이학교에 부임해온 교사 金哲應씨(29)와 부인 金英山씨(24)등 4명이 살고있다。

○…李鍾國씨는 부산에서 서점을 경영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자 지난71년 갓태어난 惠珠양을 안고 아내의 고향인 이섬을 찾아왔었다。 당시만해도 0·12평방㎞의 이섬에는 4가구에 50여명이 밭을일구고 살았으나 그동안 모두 麗水나 다른 큰섬으로 떠나고 지난해에는 부인마저 사별、李씨부녀만 남게됐다。

○…지난67년 문을연 이학교는 그동안 졸업생 19명을 배출했는데 지난78년이후 惠珠양은 이학교의 유일한 학생이었다。 망망대해의 낙도인 上島에는 교사들이 부임을 꺼려해 왔었는데 麗水교육청은 모수산회사를 사직하고 고향인 草島에서 공무원자격시험을 준비중이던 金씨를 강사로 채용、발령을한것。

金교사는『학교라해도 5평짜리교실 하나밖에없어 가정교사인것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惠珠양이 영리해 실력이 도시국민학교에 가더라도 상위급』이라고 은근히 제자를 자랑。

流星의 賊

感傷異國月 ㉒ <256>

李炳注 作 李友範 畫

『놈들은 싸움을 걸어올 모양이군』 황진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계남도 짐작되는 일이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창술(槍術)은 검술(劍術)에 비해 훨씬 그 살륙력(殺戮力)이 더하다。 그러니 외국인에게 그 비법을 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경각(警覺)할만 한 일이었다。

그럴수록 계남은 일본의 창술(槍術)이란 것을 배우고 싶었다。 계남은 매일 가나이도장(金井道場)에 나갔다。 가나이사범(金井師範)은 계남을 빈객(賓客)으로 대접하여 언제나 상좌(上座)에 모셔 놓고 제자들의 연습광경을 견학케 했다。

계남이 감동한 것은 검술 자체보다도 연습에 임하는 제자들의 절도(節度)와 예의에 있었다。 연습을 시작할 때면 무릎을 꿇고 상좌에 선생이 있거나 없거나 그 자리를 향해 정중히 절하고、다음 연습 상대 서로가 역시 정중한 절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조선에선 신위(神位)에 대해서가 아닌 다음에야 빈자리를 향해 절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계남은 사도(師道)는 일본에 있다고 느꼈다。

또 한가지 놀란 것은 조선에선 검술을 익히려면 검술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치중하는 사실이었다。 검술의 목적은 심신(心身)의 단련에 있다는 사상이 철저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 까닭에 심판의 판정은 말단(末端)의 기술에 있지 않고 자세에 있었다。

『심정(心正)이면 신정(身正)하고 신(身)이 정하면 기(技) 정(正)이니라』

가나이 도장의 현판의 글을 계남은 비로소 납득하는 기분이 되었다。 계남은 겸손하게 일본의 창술을 배우겠다고 마음 먹고 재차 가나이에게 간원했다。

가나이는 십사묵고 한동안을 지내더니 『나라에서 금하고 있다고 해서 옹립리에 가르쳐 주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검과 창은 일치의 이(理)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검에 능하면 창에도 능하게 되는 법인즉、지금은 일심불란 검을 배워 보시오。 장검(丈劍)은 척검(尺劍)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니 검을 배워、그 위에 조금의 공부만 보태면 되는 것이요』 하고 계남을 인도하여 뒤에 있는 공지로 나갔다。 그때 가나이는 목도대신 진검(眞劍)을 들고왔었다。

『보시오。 이 칼끝을』

가나이의 말에 계남은 그 칼끝을 응시했다。 정면으로 뻗어 저편 나무의 잎사귀에 초점을 맞춘 그 칼끝이 반각(半刻) 동안이나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계남이 실로 감탄했다。 양송으로 받쳐 들고 수평으로 뻗은 칼이 반각동안이나 호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신기(神技)가 아닐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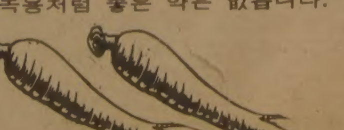
가나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칼을 칼집에 꽂으며 말했다。

『이정 부동의 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진이 못되면 동작이란 칼을 들고 있을뿐인 이 부동의 동이 가능치 않은 것이요。 부동의 동은 검지시(劍之始)이며 검지종(劍之終)이요。 귀하는 검의 소양이 대단한 분、여가를 아껴 이 부동의 동을 수련해 보시오。 그리고난 연후에 나를 찾아주시면 그때 또 의논을 하리다』

계남은 공손히 읍하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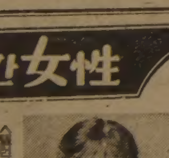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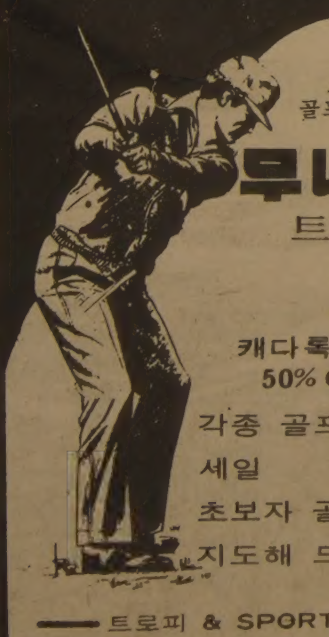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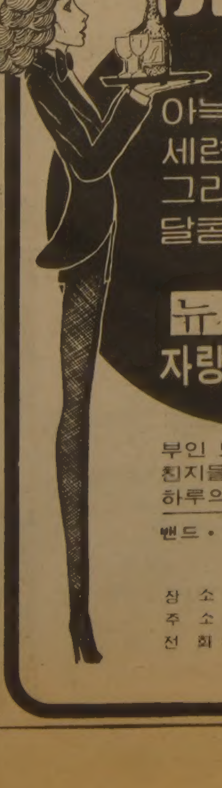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2월 13일자
주간女性



4명 모두 音樂家로 키운 맹렬 母情 —새싹회 「장한 어머니」로 뽑힌 安瑛植여사
81년 演藝 총결산 「放送界」
내탤리·우드의 「죽음·사랑」
英왕실 姑婦 싸움 2라운드
스타 誕生 夜話 尹靜姬 편
현대女性 우울증 종합 진단
비디오 産業의 오늘과 내일
사랑의 테마 特輯 「再婚」편
男子 3/4면 누이는 26살 處女 태권도 심판
충격의 潤相군 사건 뒷이야기와 反省할 문제점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 3520, 630－849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 431－4474, 439－4885(MR. 김)

도나스샾에서 6일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밤11시～아침9시) 스카보로지역
☎ : 284－9325(Mrs. 남)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 284－3031

성실하게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QUEEN ST. E.
☎ : 466－3995

●오토바디샾에서 일할 경력있는 사람구함 좋은 보수와 우대함(남자 2～3남)
●사무일보실 여자분 구함. (1명)
B)533－8507～8
R)439－6548(Mr. 리)

매매및 양도

도나스 샾과 햄버거 샾 매매 (다운타운지역)
월 순이익 $15000 보증, 권리금 $295000
☎ : 531－2689 미스타 박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좋은투자기회
30년간 이룩해온 약국과 빌딩 세일 서쪽끝에있음. 우체국 포함 ☎ : 781－2560(Mr. BALIAN)

바 겐!
단돈 $15,000 다운페이로 스탁과 설비가 포함된 비지네스와 분리된 집을 살수 있읍니다.
아스킹 : $85,900 DUTTA나RICHARD·YAN에게 연락하세요. ☎ : B)752－7575 R)499－4246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6,700 리스 : 4년반＋10년옵숀
2922 EGLINGTON E. ☎ : 431－4474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STORE FOR LEASE
NEW NEIGHBOUR HOOD PLAZA
IN GEORGE TOWN ☎ : 749－8661

투자의 기회
브라말리아 에있는 메트로 토론토 북서쪽 100 에이커의 땅. 오락센터와 고등학교에 근접해 있음. 현재 발전지 로부터 2마일 거리에 있음.
☎ : 636－0963(6PM이후 연락바람)에이젠트 원치않음.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매네저 혹은 후렌차이스도 가능함
☎ : 624－5817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4BED ROOM 월 $500(PHARMACY × 세퍼드)
☎ : 757－6334(오후6시이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야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결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622, 255－8301 (R)252－3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여행사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진용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태권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화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디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씨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낭비없는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에서!!

내밤에 등불 <15>

梁貴子 作
金光培 畵

습을보는 것은 오늘 하루로서도 충분했다.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가 몸을돌려 사라진 그 거리에서 나는 오래오래 서 있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燈)도 꺼지고 한숨도 사라진, 그러나 물밀듯 밀려오는 이 허허로운 손짓을.

〈갈채〉에 가는 것도 단념하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술을 마시고는 싶었으나 술을 사지는 않았다. 빈 방에서 뭘할 빈 병, 빈 가슴 이런 것이 싫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어둠이 짙어질대로 짙어져서 나 자신마저도 온통 어둠인 양 싶었다. 나는 일어나 불을 켰다.

갑자기 방안에 문득 기타가 눈에 띄었다. 나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이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그것을 품에 안았다.

『……승희, 내 말 들려? 넌 꼭 와야 해. …승희 내 말 들려?』

다급한 내 목소리만 웅웅 전선을 울렸다. 끈질기게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댔다.

3분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자 돌연 승희가 말했다. 『올께요. 돌아올께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오래동안 전화기만 내려다보고 서 있던 나는 한참 후에야 비로소 분명하게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 『올께요, 돌아 올께요.』 마치 그 말은 사... 양 했다. 종말을 ... 효음이 삭여버린 말을 다시 찾기 ... 또 ... 서일까, 첫번 ... 소리를 들으며 나는 ... 을 떴다.

시든 꽃잎을 쥐어뿜으면서, 그것을 발아래 물판으로 던져보내면서 우리들은 보았었다. 야위고 거칠은 풀잎조각이 바람에 안겨 공중속에 내팽개쳐지던 모습을.

견디고 또 견디어도 아득히 멀어보이는 해빙기. 겨울은 우리들의 발밑에 깊고도 어두운 동굴을 마련해주고는 뒤편에서 음흉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끝내는 견디어내기 위해서라도 승희, 네가 내 밤에 등불이 되어주렴.

내일의 출국을 앞두고 우리는 낮시간을 함께 보냈다. 『눈이 오려나봐.』 『커피를 마실까.』 『몇시에요…』 무의미한 몇마디의 말들 뒤에 이어지던 침묵.

나는 결국 공항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녀의 뒷모

배가 있었네
작은 배가 있었네
아주 작은 배가 있었네…

노래는 한없이 울렸다. 승희. 다시 만날수 있는 어떤 기약도 없이 돌려 가버린 여자. 다시 만날 수도 없는 작은배같은 여자.

간신히 참고 ... 혼란이 마음 ... 밀재히 수런거리기 시작했다. ... 면, 바로 지 ... 말 놓고 말 것이 ... 난 혼잣감이 ... 나왔다. 공중전 ... 침 비어 있었다 ... 는 손이 후두둑 떨 ...

『여보세요.』
『승희, 나야.』
『……』
『이제 알았어 난 ... 해, 네가 오지 ... 야 이미 아무것도 ... 이야. 넌 돌아와야 ...

중 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